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6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25일(음력 6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세계 불교인구 감소 영향

신중일 기자 · 김민재 객원기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종교 지형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불교 인구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전문 여론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6월 9일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종교 지형의 변화(How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Changed From 2010 to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불교 인구는 3억 4300만명에서 3억 2400만명으로 줄며 약 5% 감소했다. 불교 신도의 세계 인구 비율 역시 2010년 5%에서 2020년 4%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종교는 이슬람으로 17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21%가 성장했고, 기독교는 인구수로는 21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독교는 세계 인구 비율에서는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美퓨리서치, '세계 종교 지형 변화'
2010~2020년 10년간 변화 조사
세계 종교 중 불교만 5% 감소
동아시아 저출산 고령화 주원인
韓불교 감소폭 최상, 최근 회복세
가족 간 세대 전승 필요성 높아
'핵심 신도 양성' 목표 전법해야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불교 인구의 98%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교 인구는 10년간 6% 줄었다. 반면 북미에서는 27% 증가해 500만명, 유럽에서는 26% 증가해 250만명에 달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소규모지만 불교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다.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인구의 94%에 해당하는 6800만명이 불교도다. 그 뒤를 이은 중국은 5300만명으로 세계 2위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전 세계 불교도의 91%는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 종교로서 불교가 자리 잡은 국가는 캄보디아(97%), 태국(94%), 미얀마(89%), 부탄(75%), 스리랑카(70%), 라오스(64%), 몽골(51%) 등 7개국이다.

이 같은 불교 인구의 감소세에 대해 퓨리서치센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및 '탈종교화' 현상과도 연결된다"면서 "실제 중국 불교 인구는 2300만명, 일본 불교 인구는 70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 인구 비율로 조사했을 때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한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6%였던 한국에서의 불교 인구 비율은 2020년 19%로 7% 감소했고, 인구수로는 260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불교 인구는 15.5%(761만여 명)로 가장 낮은 수치가 조사됐고, 이후 가장 최근 이뤄진 한국리서치와 신대승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각각 17%, 19%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퓨리서치센터는 "불교 인구의 전 세계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국·홍콩·일본·한국·대만·베트남 등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제도화된 서구식 종교를 떠올리고, 수행하거나 사찰에 가도 '불교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조사의 한계점을 밝혔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불교 인구는 스스로 불교에 공식적으로 소속감을 갖고, 활발히 신앙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국한된 수치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중심의 세대 전승'과 '핵심 신도 양성'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종이 어려운 '가족 중심 신앙' 형태가 구축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제5차 비교 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개종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이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은 보고서를 통해 "부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자녀도 해당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동일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교육화·조직화된 신도 조직을 육성해야 함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을 기존 교단에서 수용하고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 신행과 문화를 앞장서서 선도해야 하는 신도 그룹들, '핵심 신도'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최근 문화적으로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저변은 확대됐지만, 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신행하는 '신도'로의 유입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신도를 양성하기 위해선 가족 중심의 세대 전승부터 강화돼야 한다. 최소한의 간단한 불교 의식을 할 수 있는 불자가 가족에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을 핵심 전법포교 조직으로 인식하고 가족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 "캄보디아에 희망을"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한명우)가 함께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에 나섰다. 양 기관은 6월 11일 시엠립(Siem Reap)주 앙코르 톰(Angkor Thom) 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5억원 상당의 의료물품 뿐 아니라 한마음선원과 마하무용단,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후원금과 생필품, 학용품 등 후원에 나선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물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양국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앙코르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문화 확산, 홍보 활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한일불교, '하루 5분 명상'으로 세계 평화 실현

제42차 한일불교교류대회서
6월 18일 공동선언문 발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오른쪽)이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에게 평화의 종을 전하고 있다.

한일 불교계가 개인의 내면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과 민간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는 6월 18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명상보급과 실천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불확실성이 심화된 시대, '하루 5분 명상'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쟁, 갈등, 재난, 사회적 분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자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개개인의 마음 평화가 곧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며 명상보급을 넘어 명상의 생활화를 위해 하루 5분 명상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협의회는 협력으로 한일·일한 민간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양국 정부 간 외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벽과 인식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교류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적·인식적 간극 극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 교류'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교육·청년교류 등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동선언문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명안 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 스님이 서명하고 낭독했다.

앞서 열린 학술강연회는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상교 교수는 '21세기 논장(論藏) 편찬에 관하여'를 주제로, 진관 스님은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이케가미 마나 강사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워갑시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生前豫修齋 生前豫修 가사불사 생전예수재
불기 2569년
가사불사
입재 7월 2일 수요일 (음 6. 8) 오전 10시
회향 8월 12일 화요일 (음 윤 6. 19)
• 이운식 오전 9시 영산전
• 회향식 오전 10시 설법전
동참금 스님 지정 7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재 7월 2일 수요일 (음 6. 8) 오전 10시
회향 8월 19일 화요일 (음 윤 6. 26)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망 설판 10만원, 영가 1위 1만원
문의 • 기도 접수처(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청정한 복전의 옷 福田衣


한일불교, 한마음으로 평화의 길 열다

6월 18일, 범어사서 제42차 세계평화기원법회

진우 스님 "신뢰 화합 50년 준비"
한일불교도, 축원으로 평화 기원
정부 · 종단 인사들 협력 의지
민간외교 불교 교류 가치 재확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불교계가 6월 18일 범어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평화메시지를 공유했다.

한일 양국 불교계가 자비와 평화의 정신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인 '세계평화기원법회'가 6월 18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을 비롯한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동참해, 반세기에 가까운 교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다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양국 불교가 걸어온 48년의 교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며 "한일불교가 인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온 길은 신뢰와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드라망의 진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미래 50년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발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지금이야말로 양국 불교계가 지속가능한 미래 교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현대 사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에서 "초록의 빛깔과 맑은 소리,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한 범어사의 자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인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귀일심원(歸一心源)의 마음으로 현대 사회의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양국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계평화기원법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불교를 통한 민간외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평화를 향한 실천적 연대를 다지는 계기로 의미를 더했다. 백제를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깊은 인연을 이어온 한일 양국 불교계는, 1977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류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교류를 지속해왔다.

특히 국교 정상화 이후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 교류는 양국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정치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승·재가의 교류는 민간 외교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켜 왔다.

부산 명지신도시에 동국대병원 들어선다

6월 19일, 부산시 · 동국대 등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 협약식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동국대학교병원을 포함해 명상, 문화, 주거 시설을 갖춘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명상센터도 함께 조성돼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시와 동국대,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19일 부산시청에서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인 명지 복합메디컬타운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될 종합병원급 규모로 동국대병원을 포함해 명상, 문화, 주거, 상업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공간이다. 6만4331㎡(약 2만여 평) 규모로 500병상과 암센터를 비롯해 국제명상센터, 전통사찰음식체험관, 수행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명상센터의 경우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4자간 업무협약은 부산 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신호탄이자 산학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주)엠케이에이에이치는 부산권 의료 서비스 향상과 제반 기반 시설 구축에 협력하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 등을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금까지 구상해온 국민 마음 평안 프로그램, 선명상을 통한 치유가 이곳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명지메디컬타운이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제2병원 건립을 위해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화,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부산에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고품격 명상·문화·주거 공간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진우 스님, 정청래 의원에 "또다른 세계 도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힌 정청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정청래 의원에게 "이제부터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에너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새세상을 비춰달라"고 응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꼭 당대표가 되고 싶었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광주 전남에서 선거운동하며 백양사와 대흥사, 금산사에서 기도했다.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화재 공백 최소화…복구 모연 이어져

6월 16일부터 정상 업무
불교광장, 1억원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 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관이 6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폐쇄된 가운데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3일 공개한 청사 내부와 피해 수습 상황에 따르면 현재 기념관은 분진으로 뒤덮혀진 상태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재시공 등을 실시하면 최소 2개월 후에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6월 16일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층 홍보관에 통합민원실을 마련해 사찰 증명발급, 주지 품신 등 사찰 지원 업무와 승적, 수계, 법계 품서 등 교무 관련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계사 인근에 부서별 임시 사무소를 개소해 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종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집무실과 접견실은 조계사 경내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종무원 전체회의에서 종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 부서별로 교류 협력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있도록 하자"면서 "용기 내 하나씩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장단은 6월 16일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당일 현장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겪었기에 복구에 대한 염원이 더 크실 것 같다"며 "총무원장으로 덕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사찰에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1회장 만당 스님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3회 대표 삼조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명과 성보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총무원 건물을 비롯해 각 교구마다 사찰 법당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구니 종책모임 회장 정운 스님은 진우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끝까지 잘 견뎌달라"고 했다.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도 진우 스님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원장 스님 덕화로 빨리 복구 될 것이다. 원활한 복구를 위해 기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대북 이규민-다문화 김형규 특보

6월 16일, 임명장 수여하며 격려


사진 왼쪽부터 이규민, 진우 스님, 김형규 특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보에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을, 다문화정책 종책특보에 김형규 일일시호일 대표를 임명했다.

이규민 특보에게 새로운 정부와 대북 교류에 선제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진우 스님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국이지만 불교문화 교류가 단초가 돼 정치적인 부분이 풀어나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북한에도 불교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문화정책 종책특보로 임명된 김형규 일일시호일 대표에게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 때"라면서 "모든 계층에 전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감정은 버리고, 융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대북 평화’ 기조에 불교 교류 재개 ‘기대’

조계종, 대북 종책특보 임명
민추본 ‘당국 대화 재개’ 촉구
“불교문화 교류 단초 기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대북 교류를 담당할 종책특별보좌관을 임명하고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남북 불교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불교계가 남북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경색돼 있고 정치적·국제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종단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간 교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조계종이 신계사 복원 불사, 공동 법회 개최 등 남북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해 온 점을 짚고 “새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불교계가 다시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규민 특보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교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교문화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도 6월 13일 논평을 통해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추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도 12일부터 대남 방송을 하지 않게 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그동안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 위기를 조장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선제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을 다시 화합하고 적대가 깊어진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며 “조계종단과 민추본도 평화의 물꼬를 트고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7월 10일에는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추본 창립 2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장창준 교수(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가 ‘미중 패권 속 동북아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를 강의한다. 이어 ‘대선 이후 남북 관계 변화 전망 및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발표한 공약에서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 교류사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종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대북 화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6월 15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 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불교계가 민간 차원의 교류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국선열 뜻 이어 원력 다해 정진”

6월 14일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서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봉행
“국가급 행사로 자리매김 노력”


6월 14일 열린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군 관계자들이 영가들의 위패를 이운하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 72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가 주관한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과 군불교 신행단체 임원 및 회원,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천도의식은 전쟁기념관 본관에 봉안된 위패를 진우 스님과 장성, 군의장대, 취타대가 호위하며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조계종 어산종장 법안 스님과 어산작법학교 스님들의 천도의식과 내빈들의 헌향 및 헌화가 진행됐다.

2부 추모법회는 호국영령에 대한 조총과 묵념으로 막을 열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온 힘을 다해 천도재와 위령재를 봉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전몰장병, UN 참전국 장병,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삶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지속적으로 봉행해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하고 안보 결의를 다짐하며 국운융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가법어에서 “우리는 순국선열의 희생의 염원을 이어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분열과 대립을 넘어 민족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공덕을 바탕으로 이제는 고통과 업장을 모두 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시어 열반적정의 평화로운 세계에 드시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다가올 새로운 천년, 후손들은 조국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역량과 원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수불 스님은 추모사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태우신 영웅호걸이시여! 모든 것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임들은 불보살님의 광명을 따라 정토로 가시옵소서! 온 겨레의 애타는 추모의 정을 굽어살피시어, 이제는 마음 놓으시고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추모법회는 소리꾼 고영열의 추모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군종특별교구는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향후 국가급 행사로 발전해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표적 호국보훈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아시아는 친구” 20회 전등사 이주민 축제

6월 15일 전등사 경내서 개최
전국 최대 규모 1000여 명 동참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아시아 이주민들을 위해 펼치는 화합의 장 ‘이주민 문화축제-아시아는 친구’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6월 15일 전등사 경내에서 열린 제20회 이주민 문화축제에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등 10여 개국 이주민과 관람객 1000여 명이 참가해 전국 최대 규모의 이주민 문화축제임을 실감케 했다.〈사진〉

오전 10시 30분 문을 연 체험 부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의 단주 만들기, 강화로닷컴의 한국 전통 혼례 체험, 강화가족센터의 아시아 전통 놀이 부스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안산 연화사와 파주 재한 베트남 법당이 운영한 부스에는 반미 등 베트남 음식을 맛보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의 무료 진료와 주재희 약손봉사단의 발마사지, 동방대학원대학 원우회의 위락치유 등도 마련돼 이주민들의 건강을 살폈다.

오후 1시 열린 환영식에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권력과 부의 크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며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식에 이어 본 행사인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강화국악예술단의 한국전통무용 ‘사랑가’를 시작으로 강토연희단의 ‘웃다리 사물놀이’, 서울 네팔 법당의 전통악기 연주, 베트남 원오사의 전통무용이 선보였다. 또 미얀마, 줌머족, 재한 베트남 사찰, 미얀마 불교전법사원, 탈북민, 스리랑카, 고려인들이 준비한 공연이 무대를 수놓았다.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는 지난 2005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서 처음 열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봄 개최돼 이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성 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 염원”

조계종 사노위 6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서 부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6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우정국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다.〈사진〉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00년부터 성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란 기치를 내건 올해 행사에는 사노위를 비롯한 7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사노위가 이 행사에 힘을 보탠 것은 2017년부터 올해로 아홉 번째. 이날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시경·원경·도승·동신·선우·한수 스님 등 7명의 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 박정규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부스를 찾은 이들에게 오색실 팔찌를 나눠주며 다양성을 향한 존중과 포용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화엄경〉’, ‘다름을 보는 눈이 아닌 평등을 보는 지혜로 살아가라 〈금강경〉’ 등의 경전 글귀와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의 그림이 담긴 4가지 종류의 스티커를 방문객에게 전달했다.

배희정 객원기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차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대행 선사 주인공 관법, 지관 수행 新정립한 현대 생활선”

윤종갑 초빙교수,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서 주장

대행 선사 주창 ‘主人空 관법’
‘믿음–놓음–지켜봄–나툼’ 구조
주인공 믿고 관하며 실상 깨쳐
五空사상 바탕 실천행도 강조
“초기 지관–대승보살도 계승해”
中 · 日 · 초기불교 지관 조명도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진행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관(止觀)’ 수행은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 수행의 핵심원리로 작용해 왔다. 이는 붓다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그에 의해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 구조를 의미해 어떠한 수행체계가 불교의 정통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하다.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수행체계를 지관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초빙교수는 6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통해 대행 선사가 전한 수행법인 주인공 관법과 붓다의 수행법인 지관 수행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止)는 “마음의 산란을 멈추고 집중 상태로 이끄는 수행”이며 관(觀)은 “(지의) 기반 위에서 법의 실상을 통찰하는 수행”으로, 초기불교 경전에는 지(선정)와 관(지혜)을 함께 닦음으로써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윤 교수는 “지와 관은 서로 대립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닌 상보적인 것으로 함께 닦을 때 도를 인식해 삼독의 족쇄를 제거하고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며 “지를 닦아 익혀 관을 성취하고 관을 닦아 익혀 다시 지를 성취하는 지관겸수(止觀兼修)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초빙교수가 6월 14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에서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관법과 지관의 수행 구조가 일치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대행선은 “나의 마음을 주인공에 놓고, 주인공의 눈으로 지켜보는 주인공 관법”임을 강조한 윤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수행법은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은 채 오로지 지켜보는’ 지관 수행”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강조하는 ‘지켜봄의 수행’은 전통 위빠사나 수행 그대로”라며 “위빠사나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대념처경〉, 〈청정도론〉에서는 붓다의 수행법으로 사념처를 주관적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행 선사는 이 수행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수행 이후 자비와 보살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승불교의 전통도 계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주인공 관법의 마음공부가 ‘믿음-놓음(止)-지켜봄(觀)-나툼’의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명징하게 확인된다.

윤 교수는 “지관을 바탕으로 처음 단계에 믿음이 추가되고 마지막 단계의 나툼에서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이 행해진다. 특히 나툼은 대행 선사만의 독창적 수행 단계로 선사가 강조하는 ‘오공(五共)’의 실천으로 구체화된다”며 “이는 지관을 통한 수행이 깨달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대행 선사의 대승보살도 원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초기불교의 지관 수행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정립한 생활선으로서 붓다의 정통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구축한 가장 충실한 계승자로 평가돼야 한다”며 “대행선의 주인공 관법은 붓다의 수행을 현대적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수행체계이며 이는 불교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명상의 실용성과 윤리성을 모두 포괄하는 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 지관, 그리고 마음공부-불교 수행의 현대적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관론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교수가 ‘일본불교의 지관 수행 전개와 활용’을,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대적 활용 재고’를,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중국 화엄불교의 지관론과 그 의의’를,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그 활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와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제7회 묘공학술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이상을 수학하고 있는 출·재가자 9명(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이상 7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묘공학술장학금은 1년간 지원되며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학기당 150만원, 박사과정 이상 학생에게는 학기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동국대서 禪 기반 ‘응용명상’ 체험해볼까

종학硏 응용명상 강좌 진행
교내 선센터서 9월 7일까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일환으로

한국불교 전통 선(禪) 명상법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6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선(명상)센터 응용명상 체험’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명상의 실제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통 선 수행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응용명상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내면의 평화와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사전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본행사는 9월 25일 개막할 예정이다.



이번 응용명상 체험프로그램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안내하는 10여 개의 명상 세션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고려해 설계됐다.

서암 스님은 ‘쉼, 다시 나에게로’라는 주제로 응용간화선 체험을 제공하며, 브라이언 소머스(Brian Somers) 교수는 ‘외국인을 위한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한다. 황미향 교수는 ‘맑은 쉼, 소리명상’ 세션을 통해 진동 주파수 소리명상을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원상 스님은 ‘마음속, 울림명상’을 통해 치유하는 소리(울림) 명상을 진행한다.

은산 스님은 ‘안녕, 내 마음-AI와 함께하는 일주일 아침명상’이라는 주제로 호흡명상과 자애명상, 몸 인식 이완명상 등 다양한 심신치유 명상을 진행하며, 문일수 교수는 ‘일상 속 알아차림(sati)명상’ 체험을 진행한다. 고정혜 교수는 ‘K-선명상, 화두로 로그인-무심 체험’ 세션으로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한다.

응용명상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 및 QR코드 사전 등록으로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강좌는 K-명상의 활성화 기여를 위해 무료로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스승 5명, 종암경찰서 경승 위촉

6월 13일 위촉식 개최
경승실장엔 법운 정사

서울 종암경찰서(서장 류경숙 총경)는 6월 13일 경승 위촉식을 열고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 정사(탑주심인당 주교)를 경승실장으로, 포교부장 원영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기획실 미디어국장 보당 정사(명선심인당 주교), 기획실 사서국장 도원 정사(밀엄심인당 주교), 포교부 포교국장 일연 정사(창원심인당 주교) 등 4명을 경승으로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연 정사, 원영 정사, 법운 정사, 류경숙 서울종암경찰서장, 도원 정사, 보당 정사.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직원 불자회인 법우회 활동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늘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승실장 법운 정사는 “준비를 잘해서 경승실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승 활동을 하면서 법우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일 기자

저스트비 홍대선원 도반 돼 보세요

홍대선원 도반 4기 모집

JustBe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수행 커뮤니티 도반 4기를 모집한다.

도반 4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마지막 주는 오후 6시~8시) 홍대선원 5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도반 4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부처님 길을 걷고 있는 스님들이 함께한다. 헝가리 출신 원오 스님은 2002년 숭산 스님 인연으로 출가해 정진하고 있으며, 일본 출신 법여 스님은 멕시코와 미국, 홍콩,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리트릿(Retreat) 수행을 했다. 준한 스님은 2006년 출가해 해인사 강원과 율원을 졸업하고 홍대선원을 창건했다.

주지 준한 스님은 “생활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대선원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희망자는 링크트리 구글폼 작성 후 농협 301-0322-3520-11(저스티비 JustBe)로 입금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 010-5708-2423

임은호 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9월10일~9월15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9월11일 출발~9월20일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장액 대불사-칠채산-가욕관-돈황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일정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캄보디아 지원 나선 일면 스님 "세계 곳곳 생명나눔 실천"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6. 생명나눔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캄보디아 의료물품 전달 현장 上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로 1994년부터 31년간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며 생명나눔 문화확산의 활동영역을 해외로 확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11일 시엠립(Siem Reap)주 앙코르 톰(Angkor Thom) 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은 앙코르 톰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나눔문화확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와 한마음선원, 마하무용단,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외식업체 한국집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발원하며 후원금과 생필품, 학용품 등 후원에 나섰다.

앙코르 톰 지구는 시엠립 주 13개 행정구역 중 하나다. 캄보디아 말로 '커다란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앙코르 톰은 12세기, 앙코르와트를 포함한 고대도시이자 과거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다. 당시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12세기 세계 최대 도시였다.

현재 인구는 3만 여명으로 지역민의 85%가 호박과 고구마, 망고, 캐슈넛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이다. 지역의 병원은 단 4곳. 인구에 비해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앙코르 톰 지구에 의료물품을 전달한 이유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25억 상당 의료물품과 각종 학용품, 그리고 한마음선원에서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친환경 생활용품 등이다.

캄보디아는 의료물품 및 제약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에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로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캄보디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염원하며 (사)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의료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이 캄보디아 전역에 지원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겼기에 더욱 뜻깊다.

이날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앞으로 앙코르 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문화 확산, 홍보 활동,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프놈펜에서의 의약품 지원에 이어 올해는 시엠립 주를 찾아 새로운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전달된 의약품, 생필품, 노트북은 희망과 배움의 기회를 나누는 마음의 표현"이라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생명나눔의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캄보디아의 청정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환한 웃음에 감동을 전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일면 스님은 지역민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인사하며 물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일면 스님과 한명우 대표이사가 앙코르 톰 지구와의 MOU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 지원한 3000만원 상당 EM 생활용품을 앙코르 톰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모습.

6월 11일, 시엠립 앙코르 톰 지구와 MOU
25억 상당 의료품 전달…주민 건강 발원
중학교에 노트북 10대 "넓은 세상 연결"

일면 스님 "희망 · 배움 기회 나누는 것"
한마음선원도 EM친환경 생활용품 후원
지역 사찰 후원하며 마하무용단 공연도

대표이사는 "오늘 우리가 물품을 나누는 것은 결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이사는 "나누는 것은 부처님과 스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눠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고, 특히 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혼 소쿤디 앙코르 톰 부군수는 이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쿤디 부군수는 "지역민들을 위해 기부해 준 불자들의 마음이 감동적"이라면서 "전달될 의료물품과 생필품들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앙코르 톰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이자 마하무용단장이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최신 노트북 10대를 기증한 것. 정현숙 단장은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직접 전달하며 "노트북이 학습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지식의 문을 열어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협약식 후 인근 왓 쁘레아 쁘롬 로앗 사원(주지 크록 론 스님)에서도 후원물품 전달식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앙코르 톰 지역 6개 사찰 스님들이 함께해 축제를 즐겼다. 현재 앙코르 톰 지역 사찰에는 30여 명의 스님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21명의 학인스님을 교육하며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면 스님은 지역 스님들을 위해 건강식품과 개인비품을 전했다. 한마음선원이 지원한 EM친환경 생활용품과 함께 외식업체 한국집에서 준비한 소정의 후원금도 전달됐다.

학인스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한 일면 스님은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는 일불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하는 도반"이라며 "젊은 스님들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말을 많이 배워 불교 공부하러 한국에도 올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생명나눔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앙코르 톰 사찰협의회장 펨 이아이 스님은 "먼길을 마다 않고 방문해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준 일면 스님과 한국의 다양한 단체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신행중심지로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행사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마하무용단은 '아리랑' '화선무' 등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알렸다. 스님과 지역민들은 태극문양 부채를 손에 든 채 박수와 환호로 공연을 즐겼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공동모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될 모연금은 학용품과 의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위령재로 되살린 호국…순국영령 추모

통도사, 6월 14일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현덕 스님 "평화, 희생으로 이뤄"
군종교구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위령재 정례화로 호국불교 실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번 위령재는 통도사가 202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현충시설 지정을 받은 이후, 매년 정례화해 이어 오고 있는 추모의례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경내에 설치된 육군병원 분원은 전상 장병들의 치료와 후송을 맡았던 실증적 공간으로, 통도사는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법요식은 명종 5타, 삼귀의례, 애국가 제창,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봉행사, 추모사, 후원금 증정, 추모노래,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통도사는 군종특별교구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지 현덕 스님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법사인 정행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이는 군 장병들의 심신 치유와 종교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보시행으로,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도사는 단지 수행의 공간을 넘어, 전쟁의 고통을 함께한 호국의 장소"라며 "그 고통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며, 아픔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이 위령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올리는 참회와 감사의 예경"이라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에 새겨진 충절과 희생의 기록은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등불이었다"며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과 추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강석두 울산보훈지청장이 참여해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며,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추모 노래가 깊은 울림을 전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 2019년 미륵불 복장 조사 중 발견된 '용화전 미륵존불 갱 조성연기' 문서를 통해 통도사 정양원이 군 병원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951년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통도사에 머무는 장병 1600여 명을 위해 양산보건회가 위문 공연을 했다는 기사가 확인됐다. 또 병사들의 사망 기사와 주민 증언, 군 사료가 종합되면서 국방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1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현충시설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통도사는 2022년부터 위령재를 봉행하며, 단순한 기념이 아닌 불교적 추모와 평화실천의 장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통도사, 윤달 맞이 생전예수재 봉행한다

가사불사도 함께…7월 2일 입재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두 불사는 오는 7월 2일 설법전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며, 가사불사는 8월 12일, 생전예수재는 8월 19일 회향한다.

'가사불사'는 스님들에게 공양할 가사를 제작해 올리는 불사다. 회향일인 8월 12일에는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가사를 이운하고 점안 공양하는 장엄한 이운식이 거행된다.

통도사는 가사불사 기간 동안 영산전에 전통 가사를 전시하고, 재가 불자들이 참여하는 가사 제작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생전예수재'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전통 의식으로, 생사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참회의 수행이다. 이번 예수재는 49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공과 법문, 천도재로 이어진다.

법문은 △입재 7월 2일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3재 7월 22일 법상 대종사(조계종 법계위원장) △5재 8월 5일 덕문 스님(통도사 율주)으로 이어지며 초재, 2재, 4재, 6재, 막재는 법문이 없이 진행된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모든 존재가 맞이할 죽음을 수행의 거울로 삼고, 지금 이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해 주는 법회"이며 "가사불사는 수행자에게 법의를 공양하는 불사로,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이 전통으로 이어지는 귀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복지법인 혜원, '혜원백일장' 개최

6월 14일 혜원정사서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6월 14일 혜원정사에서 '제28회 혜원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백일장의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송은채 학생(경남여고)과 산문부문 박유이 학생(부산정보고)이 영광을 안았다. 그 외 부산시교육감상에 현로아, 문시우 학생 등 총 2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존경, 기대, 미움 등 복합적인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된 작품이 많아 매우 뜻깊었다. 백일장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죄를 공덕으로 바꾸는 수행합시다"

범어사, 13일 생전예수재 입재
9월까지 선지식 초청법회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음력 윤달을 맞아 6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5 백중지장기도 및 생전예수재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입재에 앞서 정오 스님은 범어사가 30년 가까이 백중 기간 동안 선지식 초청 법회를 이어오며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수행"이라며 "마지막 회향까지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재 법문에서 혜국 스님은 예수재의 의미를 강조하며 "예수재는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니라 죄를 수행의 마음으로 바꾸는 공덕의 길"이라며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난 뒤 불자들은 위패를 모신 법당에서 영가천도 기도와 시식에 동참하며 선망 부모와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번 백중지장기도 및 예수재 선지식초청법회는 입재일부터 시작해 9월 9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봉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관 스님, 마음으로 남은 스승"

관음사, 15일 3주기 추모재
마지막 저서 봉정식도 열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6월 15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연관 스님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연관 스님의 마지막 작업이었던 〈마음의 노래(註心賦)〉의 출간 봉정식이 함께 열렸다.

추모재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과 전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과 삶을 되새겼다.

법등 스님은 "연관 스님은 늘 고요한 겸손으로 존재하셨다"며 "평생 티 없이 맑은 수행자셨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글과 번역을 통해 진리를 나누고자 했다"고 추모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연관 스님이 말년에 관음사에서 원적에 들게 된 인연을 설명하며 "백승완 관음사 신도회장의 가족이 50년 가까이 스님을 모셨고, 백 회장이 마지막 간병을 하며 스님의 곁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원규 시인은 연관 스님을 추모하는 헌시를 낭독하며, 스님이 들려준 야생화와 나무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을 기렸다.

연관 스님은 말기암 투병 중에도 봉암사에서 끝까지 번역작업을 놓지 않았으며, 2022년 6월 15일 관음사에서 세수 74세, 법랍 53세로 원적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교직원불자聯, 창립 28주년 법회

6월 14일 홍법사서 봉행



부산불교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는 6월 14일 홍법사 대적광전에서 '2025년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창립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배한욱 前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등 각 지회 회장 및 각 학교 교장, 교감, 회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손은주 회장은 "지금 우리는 학교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있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 대장정 오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복각 교육’ 고불식

6월 14일 합천 판각학교서
일반 대중 100여 명 참여해
전통 각법 교육 불사 동참

합천=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설립한 (사)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 스님)은 6월 14일 합천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해인사는 이날 고불식을 통해 전통 각법 교육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하고,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해인사 장경도감 이사장), 팔만대장경연구소장 경암 스님, 판각학교장 진각 스님, 안준영 각자장 등 강사진과 교육생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불식은 해인사 포교국장 도융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향·헌다·헌화 △고불문 △환영사 △치사 △강사진 소개 △각자장 인사 △교육과정 안내 △사홍서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암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판각 교육은 인류의 고통과 분쟁을 넘어 지혜의 길을 밝히는 수행”이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해 불법의 길을 다시 세상에 펼치겠다”고 서원했다.

진각 스님은 환영사에서 “판각 교육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불사”라며 “여러분 손끝에서 새겨질 글자들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혜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보종찰 해인사 장경도감은 6월 14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

혜일 스님은 치사에서 “팔만대장경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법으로 나라를 지켜낸 상징”이라며 “오늘날 핵 위협, 인공지능, 기후 위기 같은 새로운 위기 속에서 복각은 인류 전체 안녕을 위한 수행이자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통 화각 교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덧붙였다.

안준영 각자장은 “각수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듯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안 각자장은 초조대장경 복원(2009), 삼국유사 초기본 복원, 프랑스 동서 인쇄 과정 시연, 해인사 등록판 고발(2019) 등 다양한 문화재 복원에 참여해 왔다. 교육 강사진으로는 김상욱·안은주 강사 등이 함께한다.

교육생 100명은 전통 각법의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우며, 선조들의 수행 정신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대부분 “판각 교육은 수행이며 서원”이라는 뜻을 밝히며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서원했다.

세종의 꿈, 무위사서 다시 피어나다

지역 불교人 강진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

세종 발원 담은 국보 극락보전
민생 안정 위해 수륙재 설행키도
8년간 수륙재 봉행…발원 계승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무차수륙대재는 참회와 평화를 향한 세종대왕의 발원입니다.”

전남 강진 월출산 자락에 위치한 무위사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발원이 담긴 천년고찰이다.

국보 극락보전을 비롯해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벽화, 관세음보살상 등 지정문화유산이 다수 보존돼 있어, 법당 전체가 살아 있는 불교문화유산으로 전해진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은 이 도량에서 매년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하며, 세종대왕이 남긴 자비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고 있다. 스님은 “수륙대재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로하고 교화하는 자비의례”라며 “세종대왕이 형 효령대군을 통해 극락보전을 세우고, 조선 건국의 원죄를 참회하며 백성의 평안을 발원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무위사의 극락보전은 단순한 법당이 아니다. 세종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과 원한을 참회하고, 불교의 자비를 통해 민생 안정을 염원하며 이 의식을 시작했다. 유학자들의 반발 속에서도 세종은 불교의 수륙재를 택했고, 그 전각이 바로 극락보전이었다. 효령대군이 직접 ‘지우(知友)’로 참여해 감독한 극락보전은 왕실의 원력과 불심이 결합된 상징적 공간이다.

법오 스님은 “무차수륙대재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이라며 “죽은 자에겐 해탈을, 산 자에겐 복덕과 지혜를 전하는 회향의 법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8년간 매년 봉행된 무위사 수륙대재는 지금은 지역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무위사는 최근 극락보전 해체보수에 나섰다. 600여 년의 세월로 구조가 기울고, 벽화와 불상이 훼손돼 더는 보수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오 스님은 관련 분야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2년 이상 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 6~7년간 보수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부터 단청, 벽화, 불상 보호까지 세심하고 정밀한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무위사는 고려시대 건축양식이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법당”이라며 “극락보전이 온전히 복원되어야 수륙대재의 정신도 온전히 되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법오 스님은 ‘무차수륙대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도 추진 중이다.

스님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는 쉽지 않지만, 이 전통의 복원이 곧 조선 불교의 복원이자 한국 불교의 정통성 회복”이라고 말했다.

무위사는 세종대왕과 연관된 이야기, 풍부한 성보유산을 토대로 문화해설 활동과 템플스테이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방문객들에게 극락보전과 수륙대재의 의미, 세종의 발원 등을 전하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종의 꿈’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이 성황리에 공연됐다. 오는 10월 18일에도 무위사 수륙대재와 함께 뮤지컬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이야기, 극락보전 창건 배경 등을 극적으로 그려낸다. 극 중 “전라남도 강진 무위사에서 내 사랑하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백성의 안녕을 비는 도량을 세우노라”는 세종대왕의 대사는 스님이 강조하는 무위사의 정체성을 함축한다.

법오 스님은 “이제 수륙대재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세종의 참회와 평화를 계승하는 국민적 문화행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종의 꿈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무위사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이며, 앞으로도 화합과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위사 주지 법오 스님이 극락보전을 설명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녀회 후원 요청에 문빈정사 대중 나섰다

법공 스님 등 봉사자들
‘찾아가는 고기 특공대’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와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6월 12일 광주 남구 성요셉사랑의 식당에서 ‘찾아가는 고기 특공대’ 삼겹살 나눔 행사를 열고, 어르신 100명에게 정성 가득한 식사를 제공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지 법공 스님을 비롯해 남갈 스님, 문빈정사 신도 봉사자, 누리천하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팀은 삼겹살을 직접 굽고, 국과 상추 등 반찬을 정성껏 곁들여 상차림을 준비했다. 법공 스님은 “종교를 떠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식사가 아닌,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재)예수의 까라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요셉의 집 사랑의식당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육류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고기 반찬을 드리고 싶다”는 요청에 문빈정사와 자비신행회가 후원에 나섰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월결사, 훈련병 대상 수계·문화법회

6월 14일 논산훈련소서…3200여 장병 참여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가 6월 1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군 장병 3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대법회와 문화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계사인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법문에서 “선악의 기준은 계율이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년 장병들이 수계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덕사, 을사년 하안거 1차 포살법회

6월 12일 경내 황하정루서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6월 12일 경내 황하정루에서 ‘을사년 하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결제 대중의 수행을 점검했다.〈사진〉

정혜사 능인선원 유나 현전 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운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결제 대중 250여 명이 동참했다.

수덕사는 “정기적인 결계와 포살법회를 통해 청정한 승풍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강노인복지관 “지역과 함께 한 20년”

6월 14일 개관 20주년 행사



사회복지법인 금강(대표이사 원행 스님, 정인사 주지) 산하 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이 개관 20주년과 금강노인문화센터 개관 15주년을 맞아 6월 14일 마산합포구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복지관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과 문화센터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

대표이사 원행 스님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국(守國) 사찰 용문사 ‘수국(水菊) 축제’ 연다

6월 29일~7월 6일, 경내서

경남 남해의 유서 깊은 사찰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제1회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이 활약한 ‘수국(守國)’ 사찰 용문사에서, 경내를 가득 채운 ‘수국(水菊)’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기획됐다.

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경내 종각 앞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수국 명소로는 대웅전과 명부전 옆, 영산전 앞, 녹차밭 주변, 지장대불 인근 등이 손꼽힌다.

055-962-4425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남부대 불교동아리 ‘시절인연’ 창립

14일 빛고을포교원서 창립법회
전남서 4번째 대학 불교동아리

불교계 청년 포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 불교동아리 결성이 잇따르며 지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4일 광주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에서 ‘지리산 화엄사 남부대학교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시절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불교동아리에는 지도법사에 연성 스님, 지도교수에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동아리는 총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동아리 창립은 화엄사가 순천대, 호남대, 광주여대에 이어 창립한 네 번째 대학 불교동아리 결성이다. 상월결사 전법 정신을 바탕으로 화엄사의 청년 포교에 대한 열정과 전법 의지를 담고 있다.

지도법사를 맡은 연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는 일이 스님으로서 가장 큰 공부가 된다”며 “지금 한국불교가 위기라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젊은 인연들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삶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이 여러분께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며 “지금 이 인연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아리 회장 은수민(경찰행정학과 3학년), 총무 유채민(경찰행정학과 1학년) 학생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동아리 운영을 위한 전법기금 1500만원(상월결사 1000만원, 화엄사 500만원)도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평화의 논에 통일쌀 심다

6월 12일 통일쌀 모내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2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대에서 ‘2025 구례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통일쌀 모내기’는 화엄사가 소유한 농지를 무상 제공하고, 스님과 노동자, 농민이 함께 ‘통일쌀경작단’을 구성해 공동 경작한 뒤 수확한 쌀을 북녘 동포에게 전달하기 위한 실천적 불사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모내기가 비록 당장 통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루앙프라방, 불교·관광 공존 꿈꾸다

관광객으로 훼손되는 불교 전통에
도시 영혼 지키는 착한 여행 뜬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님과 관광객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오렌지 로브 투어 소개 영상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전직 스님들이 이끄는 불교 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영국 공영 방송사 'BBC'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불교 관광 소식을 전했다.

라오스 북부의 고도(古都) 루앙프라방은 한때 조용한 영적 도시였다.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는 이곳은 불교 유산이 깊게 배인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스님들의 수도'로 불린다. 약 5만 명이 사는 이곳에만도 1000명 가까운 스님이 살고 있어 '세계에서 인구 대비 스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불린다. 또한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33개의 아름다운 사원이 자리해 '라오스 불교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2021년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조용한 도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이 편리해지자 관광객이 급증했고 그에 따른 상업화도 빨라졌다. 특히 아침 탁발 의식과 같은 전통 불교문화가 관광 상품화되면서 현지의 반발도 커졌다.

전직 스님이었던 아낫 캄표는 "루앙프라방은 14세기 라오 왕조의 수도였으며 지금도 33개의 사원과 황금 불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도시 이름도 라오스의 국보 '프라방' 불상에서 따온 것으로 현지인들은 불상에 예를 올리고 매일 탁발에 참여하며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은 이러한 전통을 알지 못한 채 인생샷 명소만 찾고 휴대폰 속 장면만 기억하고 진짜 루앙프라방은 놓친다"면서 "일부 관광객은 스님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거나 사원 불상을 훔쳐가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루앙프라방의 불교 전통을 지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올바른 관광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루앙프라방의 영혼을 회복하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다. 진짜 좋은 여행은 지역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그게 바로 좋은 업(業)을 짓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낫 캄표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몇몇 전직 스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오렌지 로브 투어(Orange Robe Tours)'와 '스피릿 오브 라오스(Spirit of Laos)' 불교 전문 여행사를 설립해 현지 불교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관광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中 모얼사원, 10대 고고학 신발견 선정

중국 최서단 불교유적
실크로드 불교사 증거


모얼사원 유적지의 불탑. 사진출처=goo 뉴스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 카슈갈 지구의 모얼사원 유적(莫尔寺遺跡)이 지난해 중국의 전국 10대 고고학 신발견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6월 11일 일본의 'goo 뉴스'는 모얼사원 유적에 대하여 상세 보도했다.

모얼사원 유적은 카슈갈 지구 카슈갈시의 쿠마타즈산 남동쪽 기슭에 소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불교사원 유적 가운데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원후 1세기부터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카슈갈 문물 고고연구소는 해당 유적지를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으며 "사원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되었고, 9~10세기경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 연구소 측은 "유적지에서는 도기, 동기, 석기, 목기, 골기, 직물 등 총 3만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사원건물은 모두 흙으로 조성되어 중국에서 발견된 토조건축 가운데 크고 오래된 곳"이라고 밝혔다.

사원이 소재한 카슈갈 지역은 고대 실크로드의 서역 남도와 서역 북도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서쪽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등 인도, 페르시아, 지중해 문명과 중국문명이 교차하던 중요한 교역점이다. 실재 이 유적지에선 고대인도와 간다라와 중원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만나 융합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모얼사원 유적은 중국과 서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의 평지형 대형 불교사원의 전형적·대표적인 예로서 초기 불교 사원의 배치와 발전, 변천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꼽힌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의 전래와 서역에서 전래된 불교의 중국화 과정이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적지를 10대 발견 중 하나로 꼽으며 "문명 간의 교류와 배움, 그리고 중국문화의 국제적 포섭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여성불자, 새로운 변화의 길 개척하자"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성료
6월 16~20일 말레이시아 쿠칭서
'전환기 불교 여성, 변화 모색'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6월 16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개막식에서 세계 여성 불자들의 지혜와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 제공=전국비구니회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가 주최한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6월 16~20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됐다. '전환기의 불교 여성, 변화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사캬디타 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여성 불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16일 개막식 격려사에서 "샤카디타 대회는 전 세계 불교 여성들이 두 해마다 한데 모여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장"이라며 "대회를 준비한 말레이시아 조직위원회와 불교를 넘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분들께 깊은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변화'는 모두가 직면한 과제"라며 "우리 불교 여성들은 이 변화의 시대에 더욱 단단히 뭉쳐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회는 세계의 명상, 논문 발표, 워크숍,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논문발표 주제로는 △불법의 지속과 전승 △변화를 헤쳐 나가고 실천하는 여성 수행자들 △출가자와 재가자,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다 △변화와 치유를 위한 실천 모델의 모색 △불법의 전승과 권위 △성폭력에 대한 토론 △불교 네트워크: 돌봄, 교육 그리고 전환 △전통의 재해석, 잚의 전환, 교육의 확장 △불교 여성 안내서에 관한 토론 △불교 전통 속 여성의 위치가 다뤄졌다.

한국 참가자들의 △한국 간화선 명상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자의 역할 변화 △한국 '힙 불교' 변화 속 여성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등의 논문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국제 샤카디타 조직의 중요성', '마음과 가슴 속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마음챙김 글쓰기', '불교 영적 돌봄'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붓다들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국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베트남 불교 승가, 닌빈성 본부 신축

사부대중 교육 · 불교 홍보 이용



닌빈성에 신축될 닌빈성 VBS 본부의 조감도. 사진출처=베트남뉴스

6월 14일 오전 베트남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는 닌빈성 본부의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베트남의 소식을 전하는 '베트남 뉴스'는 기공식의 모습을 전하며 해당 행사에 베트남 불교 승가(VBS)의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각 지구 및 시의 불교집행위원회, 다수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는 1992년 이래로 호알루시의 축칭사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와 사부대중의 증가, 성내 불교의 활동 등을 위한 새로운 본부 건물의 신축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 닌빈성 인민위원회는 호알루루시 닌칸구에 면적 5,400평방미터의 닌빈성 베트남 불교승가 본부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건물은 3층으로 각 층의 법당, 교육원, 사무동과 요사채로 이용될 예정이다. 닌민성 베트남 불교승가는 "본부건물은 현대와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연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사부대중에게 열린 공원과 호수를 함께 끼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 건물이 완공되면 닌빈성의 베트남 불교승가 측은 해당 건물에 출가대중에 공식적으로 하안거를 보낼 수 있는 선방과 불교도서관을 만들고 이 공간을 단순히 출가 대중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 불교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젊은 세대들을 교육하는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닌빈성 VBS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들에 대해 베트남 국내외의 사부대중의 보시를 요청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맑은 눈, 새로운 삶”…나눔 의술로 희망 밝히다

김안과병원 · 로터스월드, 제31차 캄보디아 의료봉사

6월 15~20일, BWC 아동센터서 첫날 600여 명 진료…20명 수술
강한 햇빛에 익상편 · 백내장 다수
강행군에도 봉사단원 “보람되다”
로터스월드, 통역 · 시설 적극 지원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는 6월 15~20일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에서 ‘제31차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안과 진료 모습.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진료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한 환자들로 북적였다.

캄보디아 시엠립=김내영 기자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헤하이 씨(75)는 오토바이를 몰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졌고,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 급기야 왼쪽 눈마저 나빠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런 그에게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BWC(Beautiful World Combodia) 아동센터에서 ‘제31차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에는 손경수 의료봉사단장을 비롯한 김안과병원 의료진 17명, 3년 전부터 의료봉사에 동참해 온 건양사이버대 김용덕 부총장 등 교직원과 학생 14명도 함께했다. 로터스월드 BWC 아동센터의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기본 검진과 통역에 힘을 보탰다.

진료 첫날,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아동센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확한 진단과 전문 장비, 뛰어난 수술 결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캄보디아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아동센터 방과후 교실은 임시 진료소로 꾸려졌고, 진료 구역은 접수·검사·수술·회복으로 나뉘었다. 익상편과 백내장 수술은 센터 내 마련된 수술실에서 진행됐다. 첫날에만 약 600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20명이 수술을 받았다. 진료를 기다리던 110여 명은 다음 날을 기약하고 돌아갔다.

의료진은 시력 측정, 망막 초음파 검사 등 정밀 진단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세심히 점검했다. 익상편 수술을 받은 플른럼 씨(69)는 “눈이 뿌옇게 흐려져서 고생이 많았다”며 “수술이 금방 끝났고 아프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4년 전 로터스월드에서 의안을 시술받은 뱃소팔 씨(67)는 “의안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긴장하지 않고 웃게 됐다”고 말했다.

3살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4살 때 의안을 받은 14살 소녀 리아는 최근 관리 소홀로 생긴 염증에 손경수 단장으로부터 관리 노력의 중요성을 전해들었다.

진료소 한쪽엔 감기·복통·알레르기 등을 살피는 내과 진료도 운영됐다. 의안 관리법, 안약 사용법 등 생활 밀착형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종일 진료와 수술이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봉사단원들의 얼굴에는 보람이 묻어났다.

김정민 김안과병원 의사는 “멀리서 찾아온 환자가 많다는 말에 놀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년째 봉사활동에 참여 중인 김지혜 원무과 팀원은 “몸은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정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덕 건양사이버대 부총장도 “봉사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라며 “학교에선 얻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로터스월드는 원활한 의료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조율과 통역, 시설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현장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환자들에게 덕담도 건넸다. 성관 스님은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기본”이라며 “젊고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초기 증상을 방치해 평생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한국 의료진이 매년 이곳을 찾아 아픔을 나누고 꾸준히 돌보며 보람된 일을 해 주고 있다”며 “정기적인 방문은 단발성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진다. 많은 캄보디아 주민이 밝은 눈을 선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김안과병원과 로터스월드는 2007년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4만3000여 명을 진료했고, 백내장 등 안과 수술만 2800여 건을 진행했다.

“환자들 환한 미소가 봉사 원동력”

손경수 해외의료봉사단장

2007년부터 의료봉사 참여
치료시기 놓쳐 진료 어려움
“삶에 감사함 가지길” 당부



“지금까지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이 향상되고, 봉사에 함께한 이들도 소중한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은 울림을 얻길 바랍니다.”

손경수 해외의료봉사단장은 2007년부터 김안과병원 로터스월드와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그는 “매번 무탈하게 봉사를 마치길 기도한다”며 “무엇보다 이곳 환자들이 잘 치료받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현지 의료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의료봉사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대해 “한국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손 단장은 봉사기간 동안 매일 10여 건의 수술을 담당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이 쉽지 않았다. 그는 “이곳 환자들은 안구 조직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굉장히 까다롭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수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수술 다음 날 경과를 확인하러 오는 환자들의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볼 때다. 그는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 수보다 봉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로터스월드가 기반이 돼 줬고, 병원 동료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비를 실천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며 “봉사를 통해 스스로 누리고 있는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K 뷰티 미용봉사에 웃음꽃 ‘활짝’

건양사이버대 글로벌뷰티학과
현지 주민 200명에 재능 기부



의료봉사 첫날인 6월 15일, 캄보디아 시엠립 BWC 아동센터 입구에서 시선을 끄는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졌다. 건양사이버대 글로벌뷰티학과가 현지 주민들을 위해 미용봉사에 나선 것이다.〈사진〉 이날 임옥진 교수를 비롯한 학생 3명은 미용 기술을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로터스월드 미용센터 소속 현지 직원 6명도 봉사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미용봉사는 불과 3시간 만에 200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임옥진 교수는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하다”면서 “지난해 학과 차원의 첫 캄보디아 미용봉사에 이어 의료봉사단과 처음으로 함께 한 이번 미용봉사가 학생들에게 ‘K뷰티를 알린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내영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6/2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6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7	정관스님 나의 음식	정관, 후남 셀만	월북
3	생전예수재(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8	원각경	김현준	효림
4	네 가지 마음 챙기는공부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행복한 삶 그리고 고요한 죽음	달라이라마	하루헌
5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10	개미의 발소리	진우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365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6	천수다라니와 앙코르와트의 비밀	전재성 지음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참회	김현준	효림	7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개정판)	석성우,석지현	민족사
4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2)	비구 범일	여시아독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	운주사	10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야차, 아수라…괴물이라 불린 신들



나는 신이로소이다
김용덕 지음
미술문화 / 2만6000원



전쟁과 투쟁의 신 '아수라'는 고대 인도의 신이었으나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으로 거듭난다. 사진은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에 표현된 아수라. 조선 175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화 속 낯설고 위대한 존재
경전과 도상으로 읽는 시대 정서
동물-신-요괴 '크리처 3부작'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흔히 '아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나 온갖 범죄를 그린 영화 '아수라' 혹은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속 아수라 백작 등 뭔가 꺼림칙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그려질 듯하다.

하지만 아수라는 불교를 수호하는 신(神)이다. 반은 인간, 반은 독수리의 형상을 한 아수라의 기원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모시는 주신(主神) 아후라로 알려져 있다. 인도로 전해진 아후라는 브라만교에 편입되면서 아수라가 되고, 인도 토속신 대부분이 그러하듯 불교에 스며든다. 초기 불교 경전 속 아수라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神衆)으로 거듭난다.

〈나는 신이로소이다〉는 아수라와 야차, 가루다, 시왕, 수성노인 등 불교 전통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형(異形)의 존재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겼기에 '괴물'이라 불리기도 했던 존재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믿음을 반영하며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경전과 신화, 민담을 넘나들며 미처 몰랐던 존재들의 근원을 살피고, 다채로운 도판과 시각 자료를 통해 신적 존재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는 추천사에서 "장르 콘텐츠의 밑바탕이 되는 원전을 학자와 창작자의 시각 사이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다"고 책의 의미를 짚었다.

저자는 첫 책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불교 크리처' 붐을 일으킨 김용덕 학예사(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 그는 여러 특강과 대학 강의, 유튜브를 통해 가릉빈가, 뇌공신, 화상어 등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환상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신화와 캐릭터 분석'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사찰을 지키는 금강역사와 석탑 기단에 새겨진 야차, 벽화에 그려진 가루다, 외계인처럼 긴 정수리를 한 수성노인 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저자는 MZ세대들이 이 같은 동양적·불교적 신에 열광하는 이유로 '신선함'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최근 '힙(Hip) 불교' 열풍으로 학생들이 불교를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캐릭터에 갈증을 느끼는 창작자들은 제우스나 토르 같은 익숙한 서양 신이 아닌 금강역사와 시왕 같은 존재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의 포용성도 큰 이유다. 그는 "불교는 다른 문화 속 토속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며 "인도 토속신에서 불교의 수호신이 된 야차, 남극성 신화에서 유래해 장수를 상징하게 된 수성노인처럼 문화 간 전이와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는 존재들은 시대의 정서와 욕망이 응축된 문화적 텍스트"라고 강조한다.



전작에서 환상동물, 이번 책에서 신을 다룬 저자는 앞으로 요괴를 소개하는 책을 집필해 '크리처 3부작'을 완결할 예정이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낯설고 기묘한 전통문화 속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재해석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며 "독자들이 책을 들고 사찰을 찾아가 불교 문화유산에 새겨진 다양한 신들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명사 서평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학 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8번째 책인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서평을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이 보내왔다. 〈편집자 주〉

불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운주사 / 3만3000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접점 탐구
번뇌·무지 해방으로 진정한 자유 실현
"시대정신과 사회적 과제에 응답해야"

불교는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20세기 일부 사람들은 불교사상과 사회주의의 일치를 주장하며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평등과 사유재산의 부정을 불교와 사회주의의 접점으로 삼기도 했다. 동남아의 몇 나라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책은 현대사회 속 불교의 역할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밝힌다. 저자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적 현실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불교의 보살정신과 자비심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불교도의 국정 참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서구적 전개,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다. 저자는 많은 한국인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보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불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접점을 탐구하면서, 불교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성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처럼 인간을 권력의 도구로 취급하는 견해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 자유의 개념은 서구 철학과 정치사상 내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선험적 자유와 실정법상의 자유,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등 그 스펙트럼은 넓다.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관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율적 수행과 자기해방의 개념과도 상응한다.

저자에 의하면 불교는 출발부터 외적 권력이나 조건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번뇌와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길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제도로서의 자유를 지향한다면, 불교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해방과 자주를 추구한다. 양자는 상보적으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철학적 기반을 이룬다.

저자는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평등, 박애, 행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체제라면, 불교 또한 자비와 배려, 그리고 연기 사상을 통해 공동체적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석한다. 이런 윤리적 기초 위에서 불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화시키고,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간 내면의 해방이라는 궁극의 자유로 나아가게 한다. 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전통에 기반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상적 동반자이다.

결국 이 책은 불교가 시대정신과 정치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문명사적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불교가 공공선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제안을 담고 있다. 불교의 침묵이 사회적 퇴행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현대 불교가 수행과 사변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사회 참여와 정치적 책임의식을 내면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불교적 자유민주주의 지도자 양성을 우리 시대의 과제로 제시한 점에 깊이 공감해 마지않는다.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만법이 오직 한마음[一心]일 뿐이다!

회통불교의 진수를 담은 영명연수 선사의 대표작,
『주심부(註心賦)』 완역!

『주심부』는 모든 불법의 교설과 수행관의 종지가 '마음'에 있음을 노래한 『심부』에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일심(一心) 사상으로 화엄·천태·중관·유식·정토·선종을 하나로 묶은 회통불교의 값진 저술이다.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각자 근기에 따라 공부하고 수행함에 길을 잃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스님들의 스승,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의 유작

연관 스님은 평생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삶을 살다간
이 시대 수행자의 표상이다. 직지사와 김용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조계종 최초 승가전문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학장을 맡아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전국 선원(禪院)을 돌며 수행정진했으며,
역경에도 진력하여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불서들을 다수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원융한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과 전법교화에 헌신했던
연관 스님의 마지막 번역이다.

오직 한마음이 무엇인가 ——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옮김 | 976쪽(양장) | 5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만법이 오직 한마음일 뿐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스님 옮김
불광출판사 / 5만원

회통불교 진수 〈주심부〉 완역
'마음' 본질 통찰해 열반 해탈
연관 스님 마지막 역경 불사
후학들이 2년간 연찬해 출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입멸 후 200~300년경에 문헌으로 정리되었고, 이후 교리의 해석과 계율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이 생겨나 20여 개의 부파불교 시대가 열렸다. 기원후 1세기경에는 기존의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반야와 보살행을 중시하는 대승불교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불교는 경전의 번역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불교에 이어 7세기 초부터 마음을 직시하고 관조하는 선종불교가 성립됐다.

이 같은 수많은 종파와 학파로 인해 생겨난 갈등과 혼란, 대립을 단숨에 종결한 이가 중국 법안종의 3대 조사이며 정토종의 6대 조사인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다. 선사는 모든 불교 전통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다고 갈파했다. 불경과 조사 어록에 근거해 배우고 수행하며, 불교의 요지가 오직 '한마음'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결국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펴는 당대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100권에 이르는 〈종경록〉을 지었고, 그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주심부〉 4권을 저술했다. 〈주심부〉는 마음의 노래[心賦] 335수에 517개의 해설[註]을 덧붙여 완성한 책이다. 선사는 이 책에서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대승기시론〉 등 방대한 경론을 인용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모두 일심(一心)을 가리키고 있으며 각 종파의 종지 역시 오직 한마음뿐임을 입증한다. 이렇듯 불교의 대의를 분명하게 드러낸 〈주심부〉는 여러 교설을 회통(會通)한 저술로 평가받는다.





평생을 선 수행과 교학 연찬, 역경에 매진한 연관 스님(사진 왼쪽)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주심부〉 번역을 후학들이 2년에 걸쳐 연찬해 출간하고, 6월 15일 열린 3주기 추모재에서 봉정했다.

〈마음의 노래, 주심부〉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마음의 노래' 원문과 한글 번역을, 2부에는 노래에 달린 영명연수 선사의 해설을 우리말로 옮겨 실었다. 3부에는 해설의 원문을 담았다.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주심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옮긴 이는 연관 스님(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이다. 평생을 선 수행과 교학 연찬, 역경에 매진한 스님은 2022년 6월 열반에 들기 전까지 번역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스님의 입적 후 화엄학림 수학제자 오경·오성·법인·정묵·유연·덕인·홍현 스님이 2년에 걸쳐 원고를 읽고 공부하며 본문을 가다듬고 각주를 달아 번역을 마무리 지었다.

오성 스님(제주 선래왓 주지)은 6월 15일 부산 관음사에서 열린 연관 스님 3주기 추모재에서 〈마음의 노래, 주심부〉를 봉정하고 "이 책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노래이자 치유의 언어"라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본래 마음을 지키고자 한 선사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내 삶의 중심 찾기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지음
고통달 만화
모과나무
2만2000원

42가지 주제 4쪽 만화로 엮어내
일상 고민에 명쾌한 해법 제시



기분이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다 보면 감정을 곧 '나'로 인식한 채 괴로움이 시작된다.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운영 중인 법상 스님이 이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흔들릴 땐 마음수업〉을 펴냈다. 매주 1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마음 수업에서 나온 고민을 집착, 상실, 고통 등 42가지 주제로 정리해 만화와 함께 담았다.

학창 시절, 삶이 너무도 힘들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한 법상 스님은 "삶은 힘겹게 헤쳐 나가야 하는 진흙탕이 아닌, 매 순간 감동스럽게 누려야 할 아름다운 놀이터"라고 말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님은 고통, 행복, 자괴감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명쾌하고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는 "인생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은 인연의 몫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제안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머묾 없이 무상하게 흐를 뿐"이라면서 당장 '멈춤 버튼'을 누르라고 조언한다.

불교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각 장마다 4쪽 분량의 컬러 만화를 덧붙여 집중도를 높인다.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주제 영상 법문도 볼 수 있다.

법상 스님은 "마음이 지친 청년, 길을 찾는 수행자, 불교란 낯선 문을 처음 여는 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냐', '여기, 숨 쉴 틈이 있어'라고 말 걸어오는 책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유기견 돌보며 얻은 깨달음



개에게 배운다
김나미 지음
판미동
1만7000원

13년 동물 보호 활동한 종교학자
개들에게 사랑·현존·무소유 배워

30여 년간 성경과 불경을 파고들었던 종교학자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진리를 개에게서 발견했다.

종교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김나미 씨가 최근 출간한 〈개에게 배운다〉는 '삼천 마리 개들을 구조하며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에세이다. 저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연세대학교 철학과, 스탠퍼드대 종교학과 등 국내외를 오가며 종교학을 배우고 가르쳐 왔다. 2012년 태국에서 지체 장애견 보디와의 운명적 만남 이후, 동물 보호 활동에 뛰어들어 사단법인 '세이브코리언독스'를 설립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이 책은 지난 13년간의 기록과 한국 사회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개는 깨우침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기폭제"라며 "30여 년간 불교와 철학을 공부하고 선각자들을 만나도 해소되지 않던 신의 존재, 깨달음, 열반, 도와 같은 '평생의 갈증'을 개들의 삶의 태도에서 비로소 마주했다"고 말한다.

개농장과 도축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개들, 선천적으로 뒷다리를 쓰지 못해 강물에 쓸려 내려가던 개들을 돌봐 온 저자는 오히려 이들에게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받음은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 온전한 현존, 무소유의 행복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개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 속에서 내면의 기쁨이 "백만 배가 된다"는 체험도 전한다.

저자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인간의 집착과는 달리 "개들은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집착하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의 존재에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태도를 소개한다.

"여전히 개에게 배우는 중"이라는 저자는 "개들을 통해 소유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조금은 만족스러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들은 현재에 충실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요?"

배희정 객원기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여법하게!
제불보살복장점안의식
전해오는 여러 의식들을 정리하여, 한문 원문과 한글음, 우리말 번역, 필요한 곳에는 설명까지 붙여서, 누구나 여법하게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원철 편저/사륙배판양장/464쪽/값 30,000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선불교 '無의 미학'으로 스티브 잡스를 읽다

이흥제 대표, 한국선학회 춘계대회서 발표

禪 '무의 미학', 잡스 경영 연계
i시리즈 상호의존적 초연결 지향
불교 인드라망 개념과도 맞닿아
기후위기 등 현안들 선학적 조명
선학회–동국대 WISE캠 MOU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적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종교가 불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애플을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을 선학(禪學)적 관점으로 조명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흥제 이공(e空)갑골문명공장 대표(동국대 박사)는 6월 13일 서울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선사상, 스티브 잡스의 경영과 만나다'를 통해 스티브 잡스의 경영철학이 선(禪)의 핵심 종지와 맞닿아 있음을 조명했다.

이 대표는 선사상의 핵심 요지를 '무(無)의 미학'으로 보고 "(선사상은) 선변(禪變)의 변화를 포착해 선화(禪化)의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머묾 없이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상호의존적 관계부터 시작해 변화 지향-차이 창출-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비유적 프레임워크로 선사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된 논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호의존성을 바탕한 '무의 미학'은 존재를 '고정된 무엇'으로 보기보다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또는 '관계 맺음(relating)'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실체 중심의 존재론이 아닌 관계 중심의 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인드라망의 상호의존적 관계 설정이 현대 기업경영의 불확정성과도 연결된다고 본 이 대표는 스티브 잡스의 선불교적 경영철학이 △본질 집중과 단순함 △직관 중시 △고정관념 타파 △상호연결된 시스템으로 구현됐음을 분석했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생전 모습. 불교를 신행했던 그의 경영철학을 선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 대표에 따르면 '본질 집중과 단순함'을 통해 잡스는 제품의 라인업을 단순화하고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핵심 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했다. 'Think Different'이라는 애플의 대표 캐치프라이즈는 기존 제품군을 과감히 해체하고 재정의해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흥제 이공(e空)갑골문명공장 대표

이 대표는 "단순함, 직관 중시, 고정관념 타파 등은 고정된 실체는 없으므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새롭게 규정할 수 있으며, 본질에 집중하는 선불교의 사상과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애플의 'i시리즈'는 상호의존성에 바탕한 '무의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애플의 하드웨어(Mac, iPod, iPhone, iPad 등), 소프트웨어(macOS, iOS, iPadOS 등), 서비스(iCloud,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는 긴밀한 상호 연결에 의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애플 생태계는 단순히 함께 작동하는 제품의 집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상호의존성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에 대한 설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잡스의 선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드라망의 철학적 개념이 깊은 통합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잡스는 시장조사나 설문지에 의존해 기존의 틀에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직관을 통해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제품을 창조하고자 했다"며 "이는 기존 기업들의 고객 만족법과는 다른, 고객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와 선 수행 방법론: 시대적 현안들에 대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현안을 선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미선 청주대 교수는 '선시를 통한 선종의 인간관 고찰'을, 이석환 동국대 학술연구교수는 '환경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위한 시론'을, 강지언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생은 '돈황본 〈단경〉과 포스트휴먼의 조견'을 문유정 화엄선연구원 연구원은 '생명윤리의 행위자에서 생명정치적 주체로-실천주체화 양식에 대한 선불교적 사유'를 각각 발표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국선학회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술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선학회는 학회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장 혜명 스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형유산·진언 연구…불교의례硏 성과 '눈길'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성과보고회
자체 발간 학술지, 'KCI 등재'
대성사 수집 의례문헌 도록화
'한국불교 상용진언' 연구 발간
"의례 이론화 연구 매진할 것"



불교의례문화연구소는 6월 17일 서울 종로 연구소 사옥에서 성과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교 의례 전문 연구기관인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교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 스님, 이하 연구소)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연구소 사옥에서 성과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조계종 어산작법학교 학장, 서울 대성사 주지)과 정승석 연구소 이사(동국대 명예교수), 성청환 동국대 박사,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성과는 불교의례문화연구소의 자체 발간 학술지 〈무형문화연구〉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불교 의례 및 무형유산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무형문화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스님은 "〈무형문화연구〉는 불교의례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집중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어 불교학자들에게는 학문적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논문과 달리 소외된 분야의 연구를 드러내고 종합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는 연구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성사에 소장된 불교의례 관련 문헌들을 망라해 도록화 한 〈대성사 불교문헌〉(2024)과 불교의례 고문헌 주제의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연구소의 주요한 성과다.

이 같은 성과를 보인 연구소는 올해부터 KCI등재학술지인 〈무형문화연구〉 발간 등 내실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스님은 "불교의례 전승을 위해서는 실기와 더불어 이론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등재학술지 〈무형문화연구〉 발간을 통해 관련 연구가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기차타고 템플스테이·팔도장터 체험을

문화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운영
6월 29일 서울역 출발 상품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과 협력해 팔도장터관광열차 '템플스테이 테마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프로그램은 6월 29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당일 여행 상품이다.

여행 코스는 △석종사(충북 충주) △망경산사(강원 영월) △구인사(충북 단양) △대승사(경북 문경) △미륵대흥사(충북 단양) △축서사(경북 봉화) △청량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8개 사찰로 나뉘며 각각의 사찰에서 차담·선명상·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 체험 후 지역 전통시장 및 인근 명소 관광으로 구성된다.

석종사에서는 올해 신규 오픈한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를 탑승할 수 있으며, 망경산사는 청령포 방문과 오감으로 즐기는 와이너리 체험이 연계된다. 미륵대흥사에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체험과 단양구경시장을 방문한다.

대승사는 문경새재와 점촌전통시장, 봉정사는 안동 하회마을 탐방과 안동구시장 방문, 구인사는 온달동굴과 온달관광지, 도담삼봉을 둘러본다.

축서사와 청량사는 템플스테이 체험 후 봉화목재체험장과 영주365시장을 포함한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전화(1544-7755)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불교유산 비파괴 분석, 국제저널 게재

불교유산硏–고려대 공동 연구
대산리사지 석불 비파괴 분석
암석 유사성 조사 원산지 특정

불교문화유산 비파괴 분석 조사를 통한 재질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됐다.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 이하 연구소)는 "고려대 연구팀과 합동으로 진행한 폐사지 학술조사 연구 성과물이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됐다"고 6월 16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영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석조문화유산에 사용된 화성암 석재의 암질 특성과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밀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남 함안군 대산리 사지 석조보살입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비파괴적 과학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석재의 광물학적·지구화학적·자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석의 유사성을 평가해 원산지를 특정했다.

특히, 심성암체 내 화학 성분의 공간 분포와 체계적 변화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석조보살입상에 사용된 석재는 현 위치에서 약 20㎞, 실제 운송 경로 기준 약 35㎞ 떨어진 특정 채석지에서 채석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이번 조사는 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적 기원과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이영재 고려대 교수는 "비파괴적 정량 분석을 통해 석재 출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사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 음악회

6월 14일 경내 특설무대서
원경 스님 "시대정신 계승"
최응천 청장, 지정서 전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6월 14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는 공주연정국악원의 식전 축하 연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주지 원경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했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음악회는 올해 1월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과 마곡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라며 "지정서 전달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신앙과 예술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오층석탑은 수행자의 염원과 시대 정신이 깃든 신앙의 상징인 만큼, 앞으로 문화유산을 세계와 나누는 살아 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응천 청장은 "마곡사 오층석탑은 충청도와 호남지역의 석탑 양식이 계승된 대표적인 유산"이라며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은 마곡사 스님들과 신도, 불교계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탑이자 건축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색소폰 연주자 릴리킴의 무대를 시작으로 가수 황가람, 김수찬, 박창근 등이 공연을 펼쳤으며, 마곡사연합합창단의 합창으로 마무리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韓中 예비 佛母들 작품 한자리서 만난다

동국대학교 · 항저우불학원
'불법동원' 불화 특별전
6월 19~30일 갤러리동국서


윤소현(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 불교미술 전공)의 작품 '염불'.

한국과 중국의 예비 불모(佛母)들의 작품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교내 문화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갤러리동국에서 2025년 불화특별전 '불법동원(佛法同源)'을 개최한다.

'불법의 교리는 하나에서 비롯됐다(佛法同源)'라는 의미를 가진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와 항저우불학원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통해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불화특별전을 개최한 데 이어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로 마련된 두 번째 전시로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고유성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전시는 동국대 불교미술대학이 주관하고 절강성불교협회(浙江省佛協會)와 중국 항저우 영은사(靈隱寺)가 후원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한국 21명, 중국 11명 등 총 32명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는 "한 해를 넘어 지속되는 교류 전시는 문화 교감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재학생들과 일반 관람객 모두에게 불교의 철학과 미술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4 기도가 가져다주는 것



▶한줄 요약
기도는 우리 마음에 초연함을 가져다줍니다. 기도를 통해 얻고 잃음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 태양은 항상 빛난다

"구름 지나도 해는 그대로 빛나고
비 그친 뒤에는 무지개 떠오른다
마음의 본질인 自性은 변치 않아
기도는 마음에 초연함 가져다줘
기도로써 내 마음의 해를 비추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흰 구름 먹구름 맑은 하늘 오고 가고
밝은 해는 스스로 뜨고 또 지는구나.
천둥 번개 비바람 모진 풍상 있고 없고
나 스스로 해와 같이 무지개를 품는구나.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저승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업장(業障) 때문에 저승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담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승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전제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 분별심(分別心)을 내려놓는다면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더라도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변함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구름이 지나가도 해는 그대로 빛나고, 비가 그친 뒤 무지개가 떠오르듯, 우리 마음속의 해가 언제나 빛을 내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수많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모습이 변하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이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본질, 즉 청정한 자성(自性)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본래의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인과(因果)가 윤회(輪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 또한 인과의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듯,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들고 날 뿐입니다. 고통은 기쁨의 씨앗이 되고 기쁨은 고통의 열매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지개처럼 다채롭고 아름다운 맛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인과와 윤회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신심(信心)이 있는 이는 모든 일을 인과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심이 부족한 이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사바세계는 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인과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이어집니다. 행복이 불행이라는 과보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초연함을 가져다줍니다. 기도를 통해 얻고 잃음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내 마음의 해를 비추고, 무지개를 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바쁘게 정신없이 산다는 것,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것과 같은 선상(線上)이다.
그러나 전자는 과보(果報)가 따른다는 것이고
후자는 과보가 없는 것이 과보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무엇을 위한 계산일까요?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불리함의 원인이 되고, 불리하다고 여겼던 것이 나중에 유리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이 오면 밤이 오듯, 인생의 유리와 불리 또한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과(因果)의 법칙이요,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이던 일이 나중에는 전화위복(轉禍爲福)하여 큰 이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생사 모든 일은 새옹지마(塞翁之馬)와 같이 늘 변하고 뒤바뀌는 법입니다.

우리는 유리함과 불리함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선택해도 밤은 오고, 밤을 거부해도 낮은 반드시 옵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든 유리함과 불리함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유리한 쪽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업식(業識) 때문입니다. 업식은 반복된 습관과 인식이 쌓여 고정된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유리함만을 얻고 불리함은 피하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네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유는 자신의 수많은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네가 어느 발부터 움직여야 할지 고민한다면,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얽히고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무심(無心)하게 해야 합니다. 무심이란 유리함에도, 불리함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의 분별심(分別心)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리함과 불리함에 얽매이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며 스스로 걸림없는 무애자재(無碍自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심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선택의 무게에서 벗어나 당연한 흐름 속에서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무심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마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번뇌와 욕심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를 통해 유리와 불리라는 상대적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문득 멈추어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 무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무심의 마음을 일구어 보기를 권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⑧ 성수(性修, 性守) 스님



▶한줄 요약
성수 스님은 무염 스님의 계보를 계승하면서 미적 완성도가 높은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무염 스님 법맥 이어 완성도 높인 불상 조성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30여 명의 조각승들이 1600년부터 1630년대까지 명산대찰(名山大刹)의 중심 전각인 대웅전이나 극락보전, 고승대덕(高僧大德)이 거주한 암자에 주도적으로 불상을 조성했다. 이후 배출된 수십 명의 제자들이 1640년부터 1660년대까지 명산대찰의 부속 전각인 명부전(冥府殿)이나 나한전(羅漢殿, 靈山殿),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대웅전에 불상 제작을 주도했다.

이들 가운데 성수(性修, 性守) 스님은 무염 스님의 계보를 계승하면서 미적 완성도가 높은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성수 스님은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바닥에 적힌 조성묵서(造成墨書)를 통해 주요 활동이 밝혀졌다.

1630~50년대 전북 중심 활동 조각승

지역 대표 사찰 대웅전에 불상 조성

선운사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 제작도





성수 스님이 만든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50년, 사진 왼쪽)과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0년).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이홍식

이 지장보살좌상은 1650년에 화주(化主) 덕인(德忍) 스님이 발원해 성수 스님과 경성(敬聖, 敬性) 스님이 제작했다. 또한 이 조각승들은 1650년 6월에 덕인 스님이 발원한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상(전라북도 유형문화유산)을 같이 조성했다. 따라서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화주와 조각승이 같아 동시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덕인(德忍) 스님은 1649년 대둔산 묘련암 목조관음보살좌상(남양주 불암사 봉안, 보물), 1650년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안심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대전 비래사 봉안, 보물) 조성에도 화주(化主)로 참여했다. 덕인 스님은 남양주 불암사 봉안 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원컨대 내가 임종에 들거든, 모든 죄와 장애를 소멸해 주고 더불어 서방의 아미타부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금색 빛이 비치는 가운데 수기를 받고 장차 중생제도를 다하여 다함이 있는 허공이 다함 없기를 바라니 시방 여러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쓴 것을 보면, 대둔사 묘련암과 관련 있는 스님으로 보인다.

조각승 성수 스님과 관련된 가장 빠른 기록은 1633년에 제작된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이다. 이 불상은 무염(無染) 스님과 천언(天彦) 스님 등 총 12명이 제작한 대형 불상으로, 화원 중에 성수 스님이 네 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 1630년대 불상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년 후인 1635년에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도 무염 스님을 도와 조성에 참여했다.

성수 스님은 1649년에 무염 스님이 제작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대둔사 묘련암 조성)에 부화승으로 참여하고, 1650년에 수화승으로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만든 후, 1654년 수화승 해심 스님이 고창 문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과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보물)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1650년경 성수 스님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정각사 목조보살좌상. 사진은 2007년 촬영본.

따라서 성수 스님은 1600년 전후에 태어나 1610년대 후반에서 1620년대까지 불상 제작에 보조 화승으로 참여한 후, 1630년대 전반 조각승 무염이 만든 불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1640년대 중반 불상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스님은 수화승으로 1650년부터 1654년까지 여러 사찰에 봉안할 불상을 조성했다. 성수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행사 스님(1606~1648, 이하 활동 시기)→무염 스님(1633~1656)→해심 스님(1633~1654)·성수 스님(1633~1654)→경성 스님(1648~1653)으로 이어진다. 무염 스님의 제자인 성수 스님과 해심 스님은 활동 시기와 집단 내 위상 등을 고려하면 사제지간(師弟之間)이 아니라 선후배로 보인다.

고양 원각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높이 45㎝의 중소형 불상으로, 민머리의 성문비구형(聲聞比丘形)이다. 지장보살은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조금 내밀고, 불신(佛身)과 따로 제작된 양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지장보살은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머리에 비해 어깨가 좁지만 다부진 느낌을 주며, 무릎 높이가 낮고 폭이 넓어 안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의는 목 뒷부분이 살짝 접혀 있고, 어깨에는 대의를 걸친 조선후기 전형적인 착의법을 따르고 있다.

17세기 중반 무염 스님 계보 이어

해심 스님과 선후배, 경성 스님 스승

1650~1654년 수화승으로 불상 조성

다만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온 대의자락이 목에서 허리로 반원을 그리며 흘러내리지 않은 것은 다른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 벌의 대의를 더 걸쳐 보살상 뒤쪽에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흘러내리고, 그 안쪽에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대의자락이 대각선으로 늘어진 점은 17세기 전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조각승 성수 스님이 만든 불상은 대의가 양 어깨를 덮은 통견식과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은 변형편단우견식이 남아 있고, 통견식의 대의 처리는 조선후기 제작된 불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착의법이다. 조각승 성수 스님이 만든 불상의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유사한 불상은 부여 정각사 목조보살좌상과 제주 본태박물관 목조여래좌상이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6호 | 15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150평 외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매가 : 15억

•위치 : 경남 •면적 : 700평, 전통사찰
•법당 : 30평 외
•매가 : 30억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230평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종교부지 / 주차 5대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지 : 약 500 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제주 (토지) 안내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가액 : 2억2천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총평수 : 690평(대지330평, 밭360평)
•대웅전 36평, 요사채, 공양간 30평, 산신각8평
•김천아포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 3분
•김천아포덕일아파트에서 5분
•매가 : 2억8천

010-9048-661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고령군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대지 : 210평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가액 : 보증금 300만원/년 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490평, 건평 90평, 과수 20수
2층 건물, 2층 법당
•대문 앞 버스정류장
•굿당 가능
•가액 : 4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4311-3499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광대사
•대지 1000평,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명산 도량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7395-1544

사 찰 안 내

'인연보시' 같이 동행할 인연 찾습니다
•위치 : 경남 사천 곤명면
•사찰 규모 3600평, 목조/극락전 30평, 목조/산신각 요사채 80평, 7m 미륵입불, 미분양 부도탑 20기, 연못용왕당 찜질방 등
•가액 : 10억원(상담후 30% 인수가능)

010-8961-5489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도시가스 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6 만원
•시설비 : 600 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4185-0108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대지 : 570평, 임야 및 밭 1500평, 건평 140평
•건물 : 대웅전 30평,산신각 7평, 용궁 3평, 미륵불, 요사채 50평, 별채 30평
•가액 : 5억 5천만원
•산에 둘러 싸인 볕 좋은 도량, 편의시설 및 냉난방 완비, 목재 콘크리트 사찰

043-832-4785~6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대지 : 130평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부지 2013㎡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산세 및 풍광 좋음
•주차장 넓음
•매매 : 6억 5천만원

010-3466-9991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대지 : 230평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가격 : 3억6천만원

010-5204-8176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거리
•법당, 주방, 방 2, 화장실 2
•시설비 : 1000만원, 보증금 500/40

010-7942-9015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교산지구 (전통사찰 선법사)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요사채,화장실, 주차장 등)
•가 액 : 매매가 40억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도청 부근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기도하며 한가하게 살기좋은 수행처
•대지 85평 중 인법당 16평
•조립식 요사채 12평
•가격 : 3800만원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3

010-8987-457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정말 아름다운 사찰 급매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대웅전 등
11억에서 현재 8억 대출 6억
•영천 최고급 사찰대웅전 등등
종교용지 조경최고1700평 9억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대구사찰: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진주시내 중심사찰 20억원
•팔공산암자 : 2억원 호조건
•고령사찰 :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36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좋은 씨앗을 뿌렸든 나쁜 씨앗을 뿌렸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본생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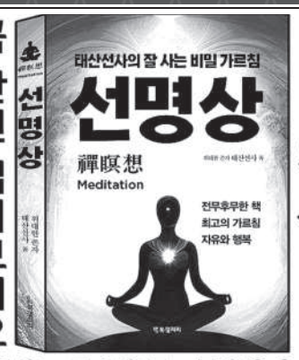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공 고 문

- 사암명 : 김삿갓달마선원
- 교 구 : 경남마산교구
- 성 명 : 김진석
- 제 목 : 체탈도첩

상기 승려는 본 종단에서 해종행위 및 종법에 반하는 행위와 승려 경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입종하여 체탈도첩 처리함.

2025년 6월 15일

한국불교종단연합회(산하)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혜인 호법원장 덕현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⑫ 정각원 하단(영가단)

허물어지는 모든 것 관조하는 자리

지난 회에 이어 우리는 정각원 주련의 세 구절이 해석되지 않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선다.(해당 구절은 '동국상방대광명東國常放大光明[동국대학교에 항상 부처님 대광명이 비추고]', '법륜상전어법계法輪常轉於法界[부처님의 법이 더욱 빛나 온 누리에 쉼 없이 구르며]',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나와 네가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이다.)

보통 법당은 부처님과 보살님, 혹은 여러 성자나 호법신 등 해당 법당의 주존을 모신 상단(불단), 불법을 지키는 신중을 모신 중단(신중단), 영가를 모신 하단(영가단)으로 이뤄져 있다. 법당에 들어가면 주존을 모신 상단에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 법당을 지켜 주시는 중단에 인사를 올리고 유주무주의 영가와 인연 있는 분들을 기억하는 하단, 즉 영가단에 시선이 머물게 된다.

처음 사찰 예절을 배울 때 법당의 상·중·하단에 삼배를 올리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던 게 기억난다. 불교를 믿으니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왜 갑자기 신중과 같은 '비현실적 존재'에게도 절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남의 집 영가들에게 왜 예경을 올려야 하는지, 남의 집 제삿날에 가면 같이 절을 올리는지 등이다. 이해가 가지 않으니 중· 하단의 예경이 생경하기만 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 상단 부처님을 향해 절도 하고 한참 올려다보며 기도를 드리지만 중단에는 가볍게, 하단은 거의 스치듯 예경을 올렸다.

그런데 나에게도 십수 년의 시간이 흐르니 주변의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힌두교에서는 파괴, 그것도 궁극적 파괴의 여신 이름을 '마하칼리(Mahākālī)'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면 '위대한 시간'이다. 즉, 시간의 여신이 파괴의 여신이고,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파괴된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다. 나의 아버지도 그랬고, 외조부, 외조모님도 시간 앞에서 허물어져 지금은 정각원 하단, 영가등 명표에 이름으로만 남아 계신다. 같이 이름을 올리신 둘째 고모님은 대단한 불자셨는데 큰 산만 보이면 반드시 그 안에 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올리시던 분이셨다.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어도 허물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니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른다.

허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일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법당에서 가장 오래 바라보고 사색하게 되는 곳이 영가단이 되었다. 앞으로도 주변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면 더 오래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사실 나라 할 것도 없는 게 다 무너져 영가단의 흔적으로 남는 게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지은 것은 허물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이에 사무치게 된 건 실재하는 타인의 죽음들 속에서다.



정각원 영가단.

영가와 인연 기억하는 영가단
'동국상방대광명'은 '추억하는 빛'
주련 세 구절, 깨달음으로 이어져

20세기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다룬 영화 '디 아워스'에서 예민한 천재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남편 레너드를 보고 울프는 짓궂게 말한다. "내 소설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해." 이에 레너드는 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며 죽음은 슬프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진지해진 울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죽은 이들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앞서 정각원 주련의 세 구절을 해석되지 않은 진주로 품고 들어왔다. 여기서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진주알을 염주로 묶어 굴려 보고자 한다. 본래 인도인의 심상에서 동쪽은 과거를, 서쪽은 미래를 은유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가야하는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는 것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법화경〉의 서막인 '서품'을 보면, 부처님께선 동쪽으로 일만팔천의 세계를 비추시며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히신다. 이는 모든 과거의 인연일체 그대로를 비추는 숙명통의 빛이다. 동쪽으로 상징되는 본인이 걸어오신 모든 과거를 돌이켜 보시고 부처님께선 결심을 하신다. 자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을 이제는 실천하실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그때이며 허물어 간 과거는 지금을 위해서라고. '그대들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할 시간이라고.

나에게 동쪽이란 이런 진주알이며 '동국상방대광명'은 지금 삶을 가능하게 한 허물어져 간 다른 모든 이들을 추억하는 빛이다. 부처님께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자신이 깨닫고서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범천권청에 따라 덧없음을 아심에도 45년을 버티신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허물어져 간 일체의 모든 것을 상기하셨다. 마치 옛날 영사기 필름이 릴 사이를 지나가듯, 서쪽에서 온 미래는 동쪽의 과거로 흘러간다. 우리는 영사기가 비춰 스크린에 쬐이는 허상에만 집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쪽으로 흘러간 과거의 필름들을 물끄러미 주시하고 계신다. 그래야만 스크린 위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

앞서의 산책에서 정각원의 주련은 두두물물의 일월성신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는 나옹 스님의 게송에서 실제 역사상에 오셨던 단 한 분의 부처님으로 포커스를 집중하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게송,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세 구절의 진주알,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열반으로 이어지는 〈화엄경〉 '현수품'으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세 알의 진주를 진주 조개잡이 어부로서 이야기를 풀어 보자.

공간의 경전인 〈화엄경〉에서는 두두물물, 일월성신에 편재한 법신 비로자나가 보리수 아래의 석가세존으로 나타나신다. 시간의 경전인 〈법화경〉은 동방 세계를 비추어 부처님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과거를 추억하시고, 이제 새로이 나갈 시간이라고 선언하신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영축산에 있으면서 법륜을 굴리며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 사실을 안 중생들은 영축산에 계신 부처님을 직접 뵙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정진하게 된다. 이 몸과 마음을 다한 중생에게 영축산의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 이를 믿어라. 여래는 허망한 말을 하지 않으니." 이를 믿으면 중생은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법화가 없이 화엄은 의미가 없다. 법화를 통해 방만하게 늘어 놓은 화엄의 장광설이 중생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 '동국상방대광명', '법륜상전어법계', '자타일시성불도'라는 〈법화경〉의 어구가 중생의 신심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국대 박사〉

십팔불공법 머물러 중생 수용
세 가지 존재 고통에서 구제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㉔ 지장보살의 공덕 찬탄

오늘 장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장보살마하살이 '대기명주 총지'를 연설하자 '거라제야산'이 진동하고 수많은 하늘 음악은 절로 울려 퍼지며 하늘의 묘한 향과 꽃과 보배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본 '대길상천녀', '구대길상천녀' 등 1만8천 천녀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님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희는 사대(四大: 지·수·화·풍)를 자유자재하게 굴릴 수 있지만, 사대의 초·중·후의 모양과 생멸 순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장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얻었으므로 그 모양과 생멸의 순위를 환히 알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찬탄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마치 밝은 해가 세간의 어둠을 없애는 것처럼, 중생의 나쁜 소견과 무명의 어두움을 다 없앴느니라. … 지장보살은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열여덟 가지 특성인 십팔불공법(십력과 사무외, 삼염주, 대비)에 머물러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수용하네 … 두타의 공덕을 지니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며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어, 세 가지 존재(삼유三有: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곳에 존재하는 것)의 고통에서 구제하네. 마치 저 허공을 일체 중생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 같이 지장보살도 이러한 무량무변한 모든 공덕의 법을 다 성취하였느니라."

이때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나타나 말합니다.

"공포에 떠는 이에게는 성(城)이 되고, 밝은 달과 같이 길을 가르치네. 선근(善根)을 냄은 대지와 같고 미혹을 부수기는 금강과 같네. 더위에는 일산이 되고 병을 고치기는 용한 의사와 같네. 하루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과 큰 명예는 수없이 많은 겁 동안 다른 지자(智者)의 덕을 일컬음보다 훨씬 나을 것이네. 중생들이 과거의 나쁜 업으로,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괴로울 때 모두를 벗겨내네. 열 가지 나쁜 세계에 빠져 고통의 핍박을 받더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 공경하면 그 고통을 모두 없애리. 고통의 수레를 타고 서로를 해치더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 공경하면 모두 참고 사랑하는 마음에 머물게 되리. 개개의 공덕과 좋은 약의 종자를 구하고자 지장보살에게 공경하면, 구하는 것 모두 얻어 만족하리."

"온갖 곡식, 약초의 밭, 또 아들과 딸 내지 종(奴)을 구하고자 지장보살에게 공경하면, 그는 구하는 것 다 얻어 만족하리. 갖가지 몸으로 화현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구족하게 보시하는 그 공덕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네. 가령 백천겁을 그치지 않고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거니 그러므로 모두가 지장보살께 공양해야 하네."

이렇게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의 제2권에서는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궁금한 점을 물으며 부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굴리시는 법의 열 가지를 수레바퀴에 비유해 열 가지 법(십륜품)을 국왕의 정치와 비교 대조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장보살의 발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게송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이 부처님국도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많고, 지혜인은 떠나가고 악인만이 하께 살며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많이 지으며, 부처님 법 비방하며 욕하고 헐뜯으며 나쁜 소견 일으켜 망령되게 단견과 상견을 주장하나이까? … 무명이 유정들의 눈을 가리고 탐욕과 질투와 간사함이 많나니, 어떻게 법륜을 굴리시어 이 중생무리들을 구제하오리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본원(本願)의 힘으로 말미암아 십종의 불륜(佛輪)을 성취해 이 불토의 오탁악세에 살고 있다.… 그리하여 삿된 스승에게 귀의하여 성인의 길을 잃고 삼악취를 향해 가고 있다."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와 같은 제1의 불륜을 성취하여, 이승과 저승의 옳고 그른 것을 훤히 다 알며, 모든 천마와 외도의 삿된 주장을 항복받고 법륜을 굴리어 큰 범행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유정들의 5가지 무간업을 없앤다. 나쁜 근을 없애고 굳은 번뇌를 없애며, 온갖 번뇌가 다한 해탈의 오묘한 결과를 세우고, 모든 중생을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안치하고 삼승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이루신 크나큰 도력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며, 해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관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⑫ 하지_영월길을 걷다(上)



▶한줄 요약
하지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일사량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옛사람들은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연회를 즐기며 이 빛의 계절을 맞이했다.

천지 만물이 생명 에너지 불태우는 시간

2월 정월 대보름 무렵, 냉기가 채 빠지지 않은 땅은 아직 돌처럼 단단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농가는 쉴 틈이 없다.

겨우내 아껴둔 감자들을 꺼내어 둥글둥글 예쁘고 튼실한 것들만 골라내는 시간. 큰 것은 뚝뚝 잘라 잘 태운 나뭇재를 묻혀 재워 두고 작은 것들은 그대로 두어도 될 일이다.

씨감자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시작된다. 3월이 오고, 춘분이 되면 푸릇한 싹이 난 씨감자는 비로소 땅속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 찬란한 기쁨이 되어 돌아올 테지.

태양의 온기와 함께 달큰한 햇감자가 돌아오는 열두 번째 계절, 하지(夏至)의 문이 열린다.



망경대산 해발 800m에 자리한 망경산사 전경. 사역은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다.



망경산사 스님들이 가꿔 온 데이지 꽃 군락.



망경산사 대웅전 전경.



풀을 매는 데 사용하는 스님의 수레.

빛의 나날

어느덧 6월. 도심의 시장은 물론 온라인 농수산물 판매처까지 '하지 감자 예약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수시로 눈에 들어온다. 곧 출하될 햇감자를 찾는 이들과 선주문을 받는 지역 농장의 분주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여름의 달뜬 기분을 더하는 때다.

하지 감자란 춘분 무렵 심어 두서너 달이 지난 하지 무렵 수확하는 감자를 말한다. 농사를 짓는 일이란 자연과 발맞추어 더불어 가는 것. 제철에 나온 작물에 제 절기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큼 정직한 보증서가 또 있을까.

하지. 일 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시기로, 이 무렵 태양은 황도상 가장 북쪽에 자리한 '하지점(夏至點)'에 올라선다. 정점에선 태양의 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서 낮과 밤의 적절한 분배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 버린다.

하지의 태양 빛을 내리받는 북반구는 일 년 중 가장 긴 한낮을 얻게 되고, 또 밤은 그만큼 짧아지고 마는 것이다. 석 달을 내리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현상도 이때 시작된다.

정오의 태양 높이는 최고점을 찍고, 낮이 가장 길며 일사량도 가장 많은 시기. 그만큼 지표면은 열기로 뜨거워지고, 기온도 점점 상승해 날씨가 몹시 더워지는 때다. 이런 날들이 켜켜이 쌓여 곧이어 삼복의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다.

가뭄과 장마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고, 또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이루어져 농촌에서는 가을 추수철과 더불어 연중 가장 바쁜 시절. 폭발하는 저 태양의 열기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이 생명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시간. 여름은 시작됐다.

불과 물의 시간

'논농사는 물 농사', '논에는 물이 장수',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에 담그고 산다' 등의 속담들은 모두 하지 전후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태양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생명은 더욱 애타게 물을 찾는다. 이 시기 비를 기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 하지가 다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과거에는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중요한 의례였다.

〈삼국사기〉부터 실록, 민관의 기록에까지 남겨진 기우제의 모습은 다양하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세시풍습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다.

1895년(고종 32)에 발간된 〈양주군읍지(陽州郡邑誌)〉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먼저 냇가, 강가, 바다에서 제를 올리며 수신에게 기원을 한 뒤, 다 함께 횃불과 장작 등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불을 지피며 연기를 피운다. 이는 연기를 일으켜 구름을 모으고, 하늘의 천신께 바람을 고하는 의미를 지닌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바탕 신명 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하지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는 절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등 동유럽 전역에서도 '이반 쿠팔라(Ivan Kupala)'라는 축제가 열린다.

성 요한 축일과 고대의 하지 축제 문화가 더해진 이날, 사람들은 숲과 호수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뛰어넘는다. 불을 뛰어넘기 전 물에 몸을 담그거나 물을 뿌리는데, 그래야만 나쁜 마음도, 악운도 사라진다는 이유다. 또 스웨덴에서는 농경신에 대한 숭배의 의미로 큰 모닥불을 피우고, 신성한 샘을 찾아가 목욕을 하며 하지 축제(Midsommar)를 열어 여름을 환영했다.

우리네 풍습과 어딘가 다른 듯, 닮아 있는 저 먼 이국의 풍경. 하늘과 땅에 기대어 살아온 인류에게 이 여름은 불과 물의 시간, 그 자체인지 모른다.

영월로 가자

서양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빛의 힘이 강해지는 하지의 전날 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전해진다. 마법의 힘이 강해지고, 꿈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말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 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의 배경도 바로 이 하지의 전날 밤. 장난꾸러기 요정이 사람의 마음을 한껏 흔들어 놓는 이야기, 그 안에는 몽환적인 영국의 여름밤과 물빛 가득한 공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를 앞에 두고 영월로 향한 것은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한 사찰을 찾기 위해서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해발 800m, 그 안에 숨겨진 망경산사.

영월 시내에서 동강을 따라 한참을 달리는 길. 스쳐 가는 산 아래 땅 위에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자라나는 옥수수와 감자, 배추 밭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제 잘 자란 감자는 하지에 맞추어 전국 각지로 전해질 것이고, 아직 풋풋한 옥수수는 7월 중순이면 다 익어 여름날의 별미가 되어 줄 것이다. 옥수수 하모니카의 구수한 내음이 나도 모르게 입안에 감도는 시간.

초록빛 파도처럼 넘실대는 땅을 뒤로하고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돌다 보면, 어느새 귀가 먹먹해지는 고도. 망경산사에 다다른다.

모두 다 살아나라

감자꽃 대신 거대하게 물결치는 백색의 꽃물결.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 대신 이 깊은 산중에 꽃구름이 가득히 내려앉았다. 망경산사의 스님들이 수년간 심고 키워 온 데이지 꽃 군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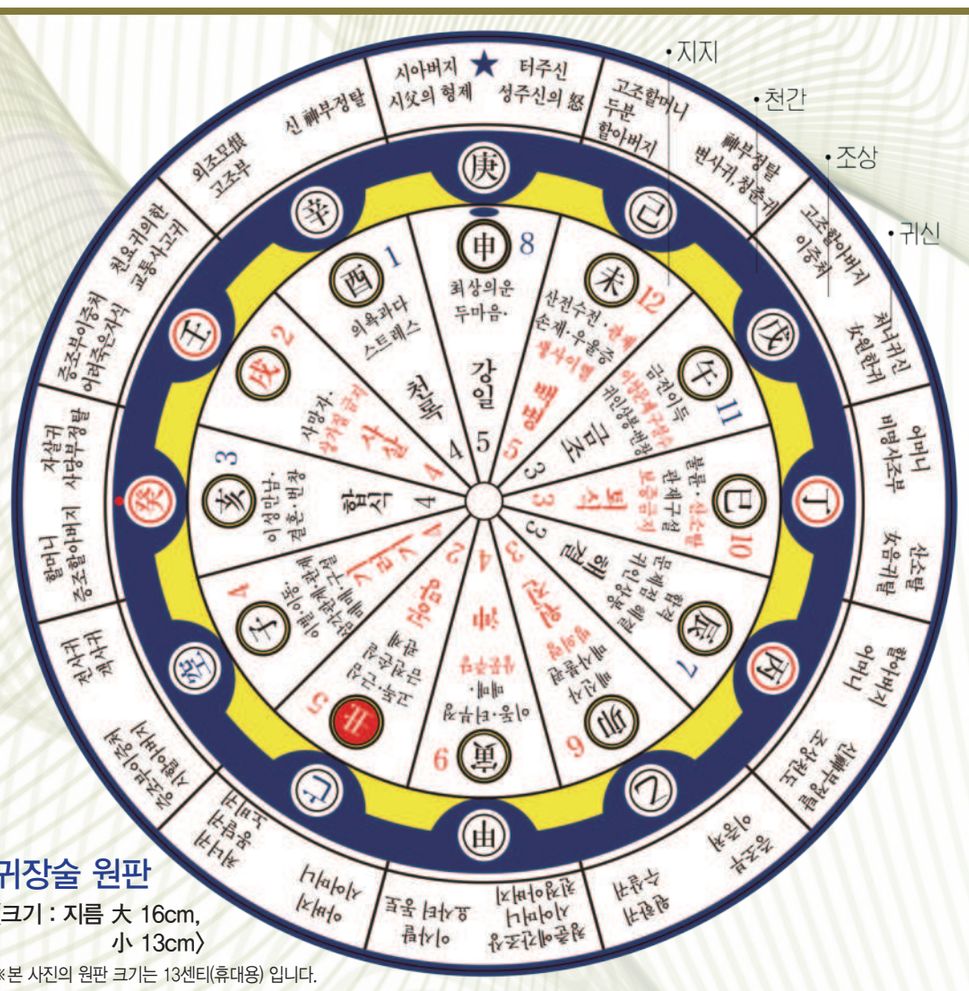
이곳은 한때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았던 영월 제일의 탄광촌.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며 버림받은 돌무더기 산자락은 유령의 땅처럼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수행공동체를 꿈꾸며 이곳을 오른 스님들은 땅을 개간하고, 파헤쳐진 산자락에 꽃씨를 뿌리며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고도가 높은 계곡에서만 자란다는 처녀치마, 노루귀, 천남성과 동자꽃, 얼레지, 바람꽃과 같은 토종 야생화. 40여 종의 취나물과 각종 희귀 식물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숨 쉬는 이곳. 약을 치지 않고 오롯이 손으로 가꿔지는 이곳을 산중 동물이라고 좋아하지 않을 리 없다.

멧돼지와 고라니, 사슴이 매일 아침저녁 제 입맛에 맞는 풀로 배를 채우고, 두더지 가족이 발 아래서 볼록볼록 굼뜨게 인사하는 땅.

저 멀리 햇살 아래 그 땅에 선 한 스님의 모습이 보인다. 뙤약볕 아래 풀을 매고, 수레를 옮기며 쉼 없이 움직이는 수행자의 시간. 그 순수한 노동이 쇠락한 폐광촌을 기름지고 푸르른 초목의 대지로 바꾸었으리라.

작열하는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대지를 일구는 사람의 마음 또한 그에 진배없는 것. 길게 누운 저 한낮의 반짝이는 발자국마다 뭇 생명이여, 모두 다 살아나라.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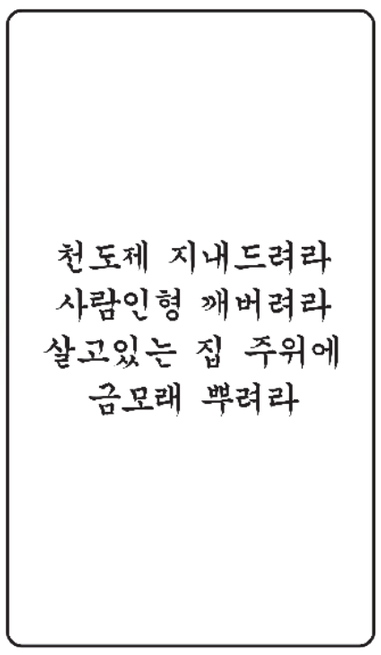


귀장술 원판
〈크기 : 지름 大 16cm, 小 13cm〉
※본 사진의 원판 크기는 13센티(휴대용) 입니다.

특허등록 30-0721929
※무단복제 및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강생 모집 | 일본점술 도궁술 가르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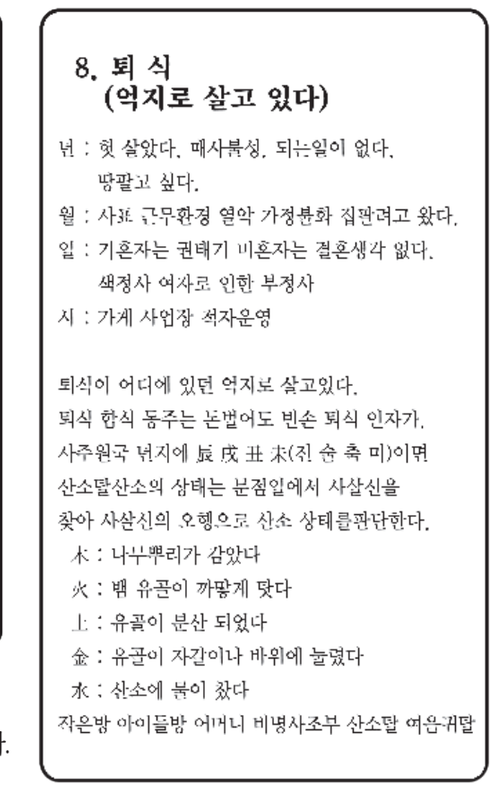




▣ 귀장술 쉽게보는 원판 '내손안의 귀장술'입니다.
▣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가 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제작 되었습니다.
▣ 문점자의 사주(연,월,일,시)를 알 수 없을 때는, 귀장술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DAUM 내 손안의 귀장술 검색
NAVER 내 손안의 귀장술 검색

21세기 영재철학관 010-8558-2345



귀장술 카드 〈크기 : 가로 9cm×세로 15cm〉
※카드 전체 수량은 15장입니다. ※카드 특허 출원중
※카드에는 원판에 모두 넣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카드를 만들어
충분한 임상을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문점자의 사주가 불확실시 카드를 뽑으세요. 정확합니다.
양면 코팅으로 보존성이 뛰어납니다.
광명진언의 강력한 힘을 믿으세요.



대행 스님

자기 의식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말리지 마세요

관법 알려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질문 요즘은 제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지켜보면서 관하는 걸 일러 주고 싶은데 아직 제 공부가 짧아서 자신이 없습니다. 관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시는 그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관하는 것만 일러 주세요. 여러 말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우환이 있거나 애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너만이 가난치 않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못났으면 좀 더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끔, 물리가 터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 주면 그냥 자기가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몇 번 그렇게 해 보고 그게 되더라 이러는 건 알았는데, 또 큰 거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유죠. '내가 조그마한 건 이렇게 되는데 큰 거는 안 될 거다. 요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큰 거를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요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업을 얼마나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붙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입력이 된 것을 모두 지워 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업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무명천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 빠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 조절해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아라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날까지 '내가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손을 꼽고 빌어 본 예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런 걸 가리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과 더불어 친구가 된 거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다면 귀신들의…, 여러분, 귀신들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거죠, 다. 그리고 조상의 탓을 하고요.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무명천이 아예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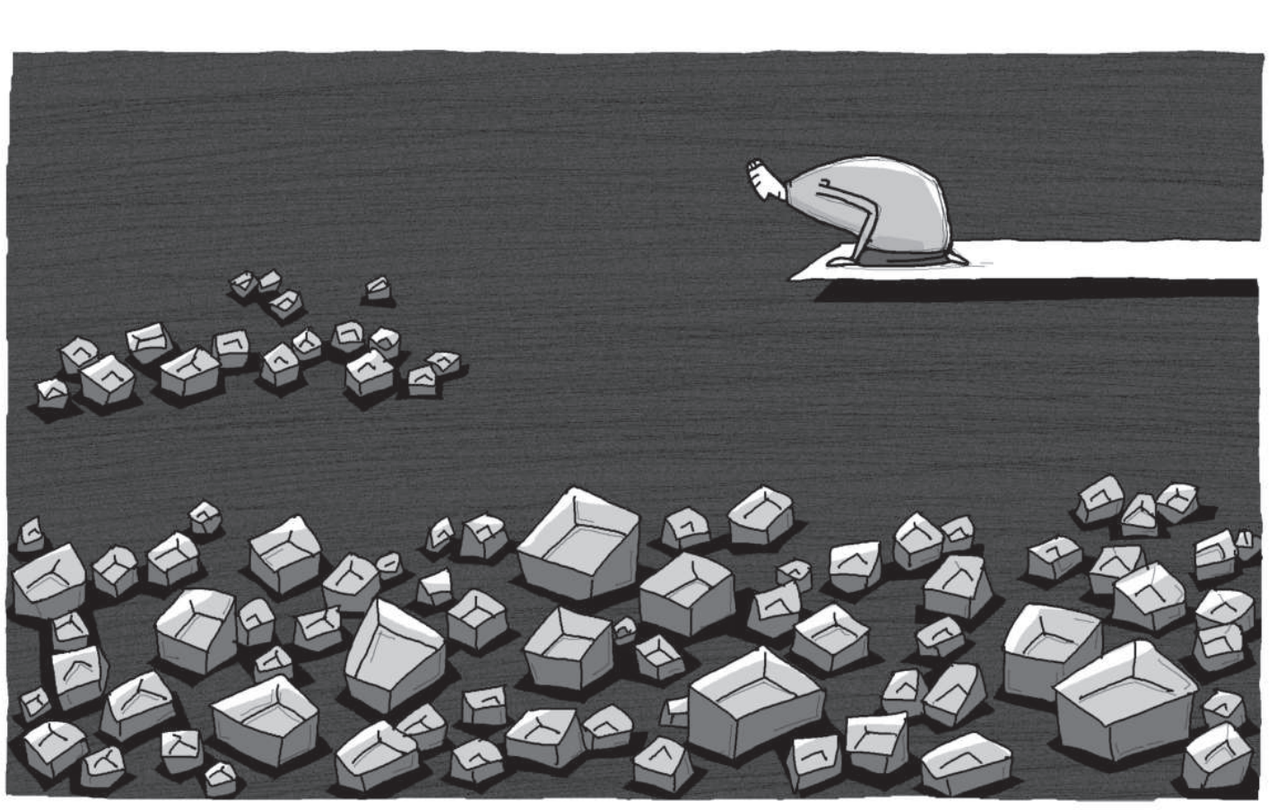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구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질문 요즘은 우리 지구가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구 안에 붙어사는 우리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불자로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는 장부가 되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먹고, 곶감 꼬치처럼 쌓아 놓은 거를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어떡해야 할까요? 하기야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들이 된다면 또 파먹을 게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둥, 십 년이 흘렀다는 둥, 삼 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틈이 없이 운행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과거의 업이 다 무너진다

☞ 19면에서 계속

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천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좌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뜨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 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났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좌천보다는 승천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숙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법바퀴를 굴려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볼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술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둘이 아니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게 됩니다.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많지만 주인공은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과거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깐 그만이지. 꿈이나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벼 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어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니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다가 천 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 년 만에도 바꿀 수 있고 삼 년 만에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차원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리듯 다 굴릴 수 있어야,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길이 바로 무상한 길입니다.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이 둥근 진리 속에서
그대로 흘러 도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



저의 사후의 일이 두렵습니다

질문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남을 도운 것은 기억에 없고 참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니 저의 사후의 일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옥행은 면할 수 있게 살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한마디 일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 둬야 할 거는 이 인연에 따라서 뭉친 것이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그게 분산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대가 흩어져서 없어지면 그 의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대로 그 의식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전부 지금 지네다 독사다 뭐, 개구리다 두꺼비다 벌레다 지렁이다 하고 수많은, 즉 말하자면 질척질척한 데서 나는 거, 화해서 나는 거,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이 사생의 어떤 것이 될지 그거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산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화해 가지고 그냥 수많은 것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수만 개의 생명이 우르르르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어떤 것은 지네가 되고 어떤 거는 지렁이가 되고 어떤 거는 독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나갑니다.

사생이 사는 게 다 우리 인간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아프지 않습니까? 벌레라고 밟으면 안 아픕니까? 우리 인간은 또 밟히면 안 아픕니까? 모두가 아프고 고통이고 고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지원에 갔다가 허리를 조금 아파 봤는데 내 그렇게 허리 아픈 거 처음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야,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허!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으라고 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러고서는 껄껄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난 더 있다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내가 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참자기는 참 일등이로구나.' 그럭하고선 나니까 허리가 일어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뚱이를 누가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독사 같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몸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16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6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고 하나하나의 의식 속에서 막 그냥 괘씸한, 남을 탓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생기고 속상하는 생각도 생기고 뭐, 강도질할 생각도 생기고 별일이 다 생기죠. 남을 약을 먹여서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 나는데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려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죽어서 사대가 흩어지면 그냥 그 수많은 구더기가 헤아릴 수 없이 생기듯이, 그냥 거기서 지네도 되고 독사도 되고 별거 다 됩니다. 그게 흩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차원대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오간지옥이라는 게 뭐냐? 벌레로 나서 이 흙 속에서 다시 탄생 못 하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 뭐냐? 독사가 돼 가지고 다시는 다른 모습으로다가 화하질 못하는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우리가 딴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천당도 있고, 이 자리에서 승천도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지옥도 있고, 바로 독사지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독사지옥이 돼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독사가 되면 독사가 되는 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습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독사 엄마, 아빠가 새끼들을 오물오물하게 낳아 놓으면 그 엄마 아빠를 산 채로 뜯어먹고 이 새끼는 삽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무섭게. 그래서 독사지옥이라 그럽니다. 아니, 그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모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죽어서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 쓴 대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근본 자리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이 카세트에다가 다른 노래를 또 넣으면 그 앞서의 노래가 없어지죠. 그와 같이 내 전자의 과거의 업이 있어도 그렇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으면 앞서의 게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전부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자기를 돌보는 보현신이 됩니다, 전부. 보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하는 것은 여러분 혼잡니다.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부부지간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저 속안 썩이려고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화낼까 봐 말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프면, 뭐, 몸이 아파서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쓰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 믿는 것을 하나라도,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을 믿어야 그래도 거기다 의지를 하고 살지요, 네? 내가 죽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나 자체입니다.

그와 같이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죽어 주는 것도 없고, 대신 똥 눠 주는 것도 없고 바로 자 주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그 길이 바로 무상한 길이죠. 무상한 길이라고 해서 허망한 길이 아니라 무상한 길입니다. 허망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이 둥근 이 진리 속에서 그대로 흘러 도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고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렇게 앨 쓰고 살아야만 됩니까? 이 고를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녀를 막론해 놓고, 늙고 젊고를 막론해 놓고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늙었다고 공부 안 하고 젊었다고 안 하고 학교 다닌다고 안 하고 장사 다닌다고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이구, 바빠서 죽을 날도 없겠네요. 그러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쓰러질 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라고 내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⑫ 분리와 반야의 발사

매 순간 자유로워지는 법

지난 연재에서 바탕 의식에 눈뜬 것만으로도, 언제라도 도피할 곳이 생긴 듯 살 만하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의식은 내 몸과 마음에 갇히게 된다.

살 만하다가, 안 살 만하다!

오랫동안 내 의식의 고향은 '바탕자리'가 아니라 '무명'이었던 것이다. 자석처럼 이끌려 다시 무명에, 업장에, 취착에, 오염된 반응체계[염법연기染法緣起]에 들러붙어 고꾸라진다. 약 15년 전 첫 삼매 체험을 한 뒤, 처절하게 방황했던 기억이 난다. 치탐진(癡貪瞋)의 습관적 집착이 다시 가동되니, 딱히 살 만하지 않았다. "다 없는 건데, 자연인이 되나?" 여태껏 목숨 걸고 하던 미술사 공부도 순식간에 심드렁해졌다. 생존을 위해 기를 쓰던 집착이 떨어져 나가도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배짱은 세졌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나에게서 벗어나는 삼매 체험)을 몰랐을 때보다, 무명의 요동은 더욱 '염오(染汚)'스럽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똥물에서 벗어나 보지 못했을 때는 그런대로 익숙해져서 지낼 만했지만, 1급수의 청정수를 경험하고 나니 똥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똥물(오염된 에너지)이 파도칠 때 좌절한다. 이 시점에서 뭇 수행자들이 '보림(保任)' 또는 '서원(誓願)' 운운하며, 구천을 떠돌게 된다.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중생이 오염된 에너지 속에서 자각하지 못하고 또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똥 속에 빠진 자가 (깨끗한 물로 가득한) 연못을 보고도 그 연못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못의 잘못이 아니다. (중략) 자신의 목에 시체가 걸려 있는데도 그것을 혐오해 벗어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자재할 수 없다.(〈불종성경〉 중에서)"고 말씀하신 바 있다. 붓다께서 존재에서 해탈하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수행하지 않는 중생은 '똥 속에 있는 사람이요, 썩어 가는 시체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다.

삼매체험 이후의 방황

문제는 삼매에서 나왔을 때 바닥을 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반응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한동안은 '없다와 있다, 냉탕과 끓탕, 극락과 지옥'을 오갔다. 석가모니 붓다는 어떻게 수행하셨을까? 나의 등대, 중생의 등불이신 석가모니 붓다를 따라가기로 했다.



'조견오온개공' 반야의 발사로 부서지는 오온, 드러나는 공성. ©강소연

붓다는 당시 유행했던 선정(사마타) 수행의 대가(알라라와 웃다까)를 찾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관(觀)하는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과 '상(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하는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경지를 성취한다. 이 두 경지는 두 스승이 각기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삼매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삼매의 경지라도 그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몸과 마음의 동요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선정 수행을 통해) 다만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었을 뿐이다. 이는 나를 집착이 없는 곳, 갈애가 없는 곳, 고(苦)가 소멸한 곳, 완전한 지혜가 있는 곳, 궁극의 깨달음의 상태로는 이끌지 못했다"라고 붓다는 토로한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매 순간 존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사유와 정념, 원인에 대한 통찰

물론 답은 있다. 이미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반야[혜慧, 통찰지]'의 계발이다. 반야의 빛이 발사되는 데는 사마타의 힘이 절대적이다. 그렇기에 붓다께서는 '계(戒)-정(定)-혜(慧)'로 본인의 수행법을 정리하셨고, 이 체계가 바로 불교를 불교되게 하는 핵심이다. 자아와 분리된 바탕의식(또는 바탕자리)에서 '지금 일어난 현상의 원인이 뭐지'라고 정사유(正思惟)를 했더니, 반야의 레이저 건이 발사되어 그 과정과 요소들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사유의 '사유'란 무얼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통찰한다'는 의미이다. 붓다께서는 더욱더 미세하고 깊은 경지로 들어갈 때마다, 정사유를 징검다리 삼으셨다는 것을 초기 경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마타는 흔들리는 총부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위빠사나는 총알을 발사해 과녁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정(定)과 혜(慧)의 협업으로 일어난 법의 연기(緣起)된 과정이 (분해되어) 드러나니, 더 이상 덩어리(조건 지어진 것)에 속지 않는다. 공(空)이 드러난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行深般若波羅蜜多時),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으로 시작하는 〈반야심경〉의 문구가 떠오른다. 제대로 반야의 총알로 타깃을 맞추어 그것이 산산이 부서질 때 느껴지는 해방감과 자유. 하지만, 가물에 콩 나듯 발사된다. 아! 이젠 반야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이렇게 힘이 약해서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기 힘든 정정(正定)과 정념(正念), 짐을 싸 들고 선방으로 직행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⑫ 올바른 코 스프레이 사용법

증상·나이 따라 3종 중 선택해야

"아이고, 또 오셨네요. 반갑기는 한데, 약국에 자주 오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만성 비염이래요. 도무지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코 스프레이도 함께 처방됐어요. 이 스프레이는 하루 한 번씩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환자분은 1~2주 이상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주 뿌리지 말라던데요?"

"음, 물론 그런 코 스프레이도 있죠. 종류에 따라 다른데 혹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나요?"

"코 스프레이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는 특히 알레르기 비염으로 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찾으시는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코 스프레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병원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번 화에서는 코 스프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흔히 '피지오머'나 '마플러스'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생리식염수 기반의 비강 스프레이다. 이는 비강 내 수분을 공급해 촉촉하게 함으로써 코 막힘, 건조함, 진득한 콧물을 녹여내고, 먼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다.

이런 종류의 스프레이는 코 내부를 촉촉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 신생아부터 쓸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데, 2세 미만의 아기는 콧구멍에 1회씩 분무하고, 그 이상은 1~2회씩 분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통 코 내부가 건조할 때 사용하거나, 콧물이 진득하게 맺혀 있어 호흡이 불편할 때 사용하는데, 사용 후 5분 정도는 코를 풀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 콧물 흡입기나 면봉 등을 사용해 녹여낸 콧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간혹 콧물이 많이 흐를 때,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콧물 약을 먹고 나서, 오히려 코안이 건조해지거나 콧물이 말라붙어 코 막힘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런 종류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오트리빈'이라는 상품명으로 유명한 비충혈 제거 스프레이가 있다. 이 종류의 제품은 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코의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를 통해 막힌 코를 뚫어 주는 효과가 있다. 성분은 크게 자일로메타졸린과 옥시메타졸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름이 비슷한 것처럼 같은 계열의 약물이다.

옥시메타졸린은 만 12세 이상 사용 가능하고, 자일로메타졸린에 비해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며(25초 이내 효과가 나타난다), 지속 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일로메타졸린 성분은 농도에 따라 저농도인 0.05% 제품은 만 2세부터 만 11세까지 사용 가능하며, 0.1% 제품은 만 12세 이상부터 사용한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위 성분에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해 콧물과 코 막힘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도 있으니 사용하는 사람의 증상과 나이에 맞게 제품을 잘 선택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런 스프레이는 매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평소에 코 혈관이 부어 코가 막히는 반동성 비충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7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프레이들은 항균 보존이 가능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염 걱정 없이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코 스프레이 종류가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계절성 비염, 만성 비염의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다. 사용 기간은 증상과 치료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1~2일만 사용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최대 효과는 2주 정도 사용했을 때 나타난다. 만성 비염이나 비강폴립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스프레이는 보통 1일 1~2회 증상에 따라 조절해 사용하며, 취침 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 11세 기준으로 그보다 어리면 양쪽 코에 1번만 분사하며, 그보다 많으면 2번 분사한다.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향이 중요한데 직선으로 똑바로 뿌리는 것보다는 살짝 바깥 방향으로 기울여 눈꼬리를 향하게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스프레이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분사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질병 치료제이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아야 하며, 복약 지도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제품이다.

〈잡아함경〉 등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이 32상(相)과 80종호(好)라는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는 '높고 똑바른 코'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코는 지혜와 도덕성, 바른 삶을 실천한 전생의 공덕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코는 매끈하고 곧으며, 코끝이 길고 둥글다. 이는 전생에 남을 험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공덕이다."

즉, 코의 모양조차도 전생의 말과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인 바, 우리는 코의 모양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으니, 건강하게라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코 스프레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많은 종류 중 어떤 코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주저 없이 동네 약국을 찾아가 보자. 약사님이라면 내 불편함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맞은 제품을 추천해 주실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행복으로 가는 길, 나를 단속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그는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기숙사 환경이 집중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들었다고 하더군요. 지인의 도움으로 적당한 집을 소개했지만, 학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망설였고, 며칠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그 집은 학생이 원하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곳이었고, 적절한 가격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 서운함과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를 시험한 건가?', '이용당한 건가?'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곧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법구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남도 이기지 못한다."(〈법구경〉 160절)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진정한 보호를 얻는다."

제 감정이 요동친 것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처음부터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알아차렸다면, 불편함도 원망도 화도 없었을 텐데.' 문제는 결국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생이 또 찾아와 자취방 현관 앞에 CCTV를 달고 싶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당신이 더 무섭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이 중적인 모습, 당신 안의 두려움과 불신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불안, 집착, 의심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친구들과 선을 잘 지키고, 자신을 잘 단속했더라면 이런 불안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타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오히려 타인을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제야 학생은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자신을 잘 지키는 이는 어디서든 두려움이 없다."(〈법구경〉)

우리는 '자기중심적 시선과 욕망(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외부를 통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탐욕과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여섯 감각의 문을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외부를 탓하기 전 내 안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단속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전과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현도 스님
한국불교상담학회 특임이사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⑰ 삼조 승찬 대사의 오도송

분별하는 마음만 버리면 깨달음 얻는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至道無難)
오직 이것저것을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만 버릴 일이네(唯嫌揀擇)
단지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但莫憎愛)
명백히 도가 드러나네(洞然明白)

삼조 승찬(僧璨, ?~606) 선사는 중국 수나라 때 스님으로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이다. 이 선시는 〈신심명(信心銘)〉에 나오는 승찬 선사의 오도송이다. 〈신심명〉은 4언 146구 584자의 운문체로 된 깨달음을 노래한 게송으로 훗날 오도송의 모델이 되었고, 선어록 가운데 최고의 언어로 평가받는다. 위의 게송은 146구 게송 중 전체의 내용을 요약 압축한 첫 번째 게송이다. 따라서 승찬 선사를 대표하는 오도송이라고 해도 잘못됨이 없다.

수나라 문제 12년(592년), 14세 된 동자승 도신(道信)이 찾아와 해탈 법문을 청하였다.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에게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 법문을 일러 주십시오."

승찬 선사가 말했다. "누가 너를 속박했더냐?" "아무도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해탈을 구하느냐?" 이 말을 듣고 도신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 스스로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자승자박하며 괴로워한다. 누가 내 인생을 작정하고 간섭하며 괴롭히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몽유병 환자가 되어 자기 생각이 꽂히면 거기에 집착해서 목숨을 걸고 불나방이 된다.

비교해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된다. 집착하는 마음은 애착에서 생긴다. 애착은 좋아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는 마음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존재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좋고 나쁘고, 예쁘고 미운 것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거나 구별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 그리고 가치를 확인한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여기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패배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현실 세계는 남보다 비교와 선택을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열등의식과 패배감으로 고통이 따른다. 결국 끝없이 경쟁하면 1등만 남고, 그 외는 열패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비교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설법한다. 고통의 씨앗인 사랑도 미움도 하지 말라고 설법한다. 비교 경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현실이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초연하라는 가르침이다.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다. 세상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대범하게 생각하면 이기면 좋고 져도 괜찮다. 이기는 승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노력하면 자신도 발전한다.

승찬 선사는 1·2구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이것저것을 차별하고 분별하는 마음만 버릴 일이네"라고 하였다. '지극한 도(至道)'는 불도(佛道)이고, 깨달음 즉,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뜻한다. 3·4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단지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명백하게 도가 드러나네"라고 읊었다. 중생은 애증심(愛憎心)으로 살고, 도인은 무심(無心)하게 산다. 집착과 애착이 없기 때문에 세상사에 오염되지 않는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연못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으로 나뉘어져 죽기 살기로 싸우며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 안타깝다. 서로 잘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국제구호 나선 생명나눔이 그려갈 연화세계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본지가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에 나섰다. 양 기관은 6월 9~14일 시엠립 앙코르 톰 지구를 직접 찾아 지역민에게 25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지난해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 전역에 배포했으니 2년간 45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앙코르 톰 지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민 건강 증진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을 약속해 뜻깊다. 한마음선원, 마하무용단, 세계행복나눔태권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나누는 세상을 발원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

지난 31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많은 이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1200여 환자들에게 45억여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25만 명이 넘는 회원이 함께하는 불교계 유일한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 발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제 국내 사업에서 국제구호로 한 발짝 더 성장하려 한다. 이들의 국제구호사업은 물품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동 교육 복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의 문화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연꽃을 표현하는 '처염상정(處染常淨)'에는 더러운 곳에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이 담겼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자비나눔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에 그려 나갈 연화세계가 기대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게더 本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공성·연구 재연한 기계, '양자컴퓨터'

현불논단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아수라발발타! 맛있어져라!" 이런다고 라면 맛이 달라질까마는 진짜란다. 양자컴퓨터의 이치가 그렇다. 상상대로 이뤄지는 것이 실상의 진리고, 이를 흉내 낸 것이 양자컴퓨터이기 때문이다. 찰나지간에 삼천대천세계 낱낱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보는 붓다의 전지전능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명이다.

기존 과학을 뛰어넘어 특이점에 근접한 궁극의 기계, 양자컴퓨터가 새로운 화두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 '중첩'과 '얽힘'으로 대표되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고정된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고민해온 불자라면 그리 낯설지 않을지 모른다. '중첩'이란 정해진 바 없기에,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잠재성이다. 불교적 진리, '공성'의 다른 이름이다.

'얽힘'이란 인과적 작용성이다. 시공간과 존재이면의 동시다발적 상호의존 현상이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와 얽혀서 작용한다는 불교적 진리, '연기'다. 요약하자면,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중첩'과 '얽힘'은 불교의 핵심 진리인 '공성'과 '연기'에 다름 아니다. '공성'이기에 '연기'요, '연기'이기에 '공성'인 실상 진리를 재연한 기계가 양자컴퓨터다.

양자역학 '중첩·얽힘' 원리
불교 '공성·연기'와 맞닿아
佛法의 진리, 과학으로 증명

양자컴퓨터는 AI와 더불어 신문명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임은 물론 나아가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위한 통찰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시 원리를 살펴보자. 양자컴퓨터는 세 단계로 작동된다.

첫째 초기화다. 양자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첩'과 '얽힘'을 반영하여 문제와 힌트를 구상하는 일이다. 물론 기존의 이분법적 논리(비트)로는 안된다. 중첩의 논리(큐비트)가 필요하다. 즉 가능한 모든 답이 연산될 확률을 동등하게 (중첩) 만든 뒤, 원하는 해답을 찾을 힌트에 높은 확률을 실어서(얽힘) 양자컴퓨터에 입력시킨다. 출제자의 의도, 즉 원하는 바를(원력) 반영시킨 것이다.

둘째 양자 연산이다. 양자컴퓨터를 돌린다. 순식간에 병렬 연산 처리된 모든 해답이 '중첩' 상태로 잠재된다.

셋째 측정이다. 하나의 정답을 확정하기 위해 측정, 즉 출제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초기에 의도(원력)를 냈던 출제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중첩'은 붕괴된다.

모든 해답 중 오직 출제자가 원했던 정답만 오롯이 드러난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찰나지간에 전지전능을 발휘하는 신통은 더 이상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부처님처럼 양자세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실세계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 즉 업력의 인과적 작용성과 무자성의 잠재력을 바로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너무나 당연한 과학이기 때문이다. '공성'이 곧 '연기'이기에 가능한 신비가 아닌 과학인 것이다.

"가섭아! 마땅히 알라. 여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나이듦을 마주하며…

세간과 출세간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졸업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왔다. 멀리 경주까지 KTX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한 고속열차가 동대구역을 지나 신경주역에 가까워지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향수가 한꺼번에 부풀어 올랐다. 이름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같이 짝꿍을 했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등등. 어느새 내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시내 외곽의 분황사를 지나 행사장인 '더 K 호텔'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언젠가 들어 본듯한 이름들을 불러대는 소리로 이미 왁자지껄 시끌벅적했다. 얼굴은 겨우 기억나는데 이름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동창들이 대부분이었다. 하긴 10년도 아닌 50년이란 긴 세월의 강을 건너 얼굴과 이름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 친구가 내 이름을 살갑게 부르면서 악수를 청했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 친구를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무안해했고, 나는 미안해서 당황했다.

그렇게들 한바탕 소란을 떨다가 가까운 테이블로 삼삼오오 끼리끼리 둘러앉았다. 근황을 주고받고 당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사이에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노래 부르는 남자 동창을 둘러싸고 여자 동창 서넛이 춤

50년 만에 간 중학교 동창회
외형에 내려앉은 세월 '실감'
다시 못 올 시간 그리움 담겨

을 추면서 흥을 돋우기도 했다. 이쪽저쪽에서 건배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서울행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일어서야 했다. 울산 사는 여자 동창이 가는 방향이라면서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고마운 일이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동안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백발의 중년 아저씨와 아줌마는 동시에 멋쩍게 웃고 말았다.

문득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중반의 내 나이 또래가 그나마 고향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대인 아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다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고향이란 관념이 아예 생겨날 틈도 없었을 터이다.

서울 토박이인 우리집 보살은 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낼 낌새라도 보이면 못 들은 척 얼른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버린다. 자기로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기억과 추억담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 뻔하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뒤끝 작렬하는 혼·잣·말로 조용하게 읊조린다. 당신은 한여름밤 길게 드리워져 있던 은하수의 짙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느냐고. 그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먼 그리움의 원천이 되는 이유를 알기나 하느냐고.

하지만 나의 애먼 넋두리는 거기까지가 전부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촌티 물씬 나는 중늙은이로 낙인찍힐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더 보탤 말도 더 뺄 말도 없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그날 경주 보문단지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란 꽃말을 가진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중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주말 내내 나는 고향의 몸살을 심하게 앓았다.

社 說

탈종교 시대, 불교가 응답해야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불교 인구가 약 5% 줄었다고 한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인데, 여러 종교 중 유일하게 불교 인구만이 감소한데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교 인구 비율이 2010년 26%에서 2020년 19%로 하락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퓨리서치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이탈 현상과 불교 인구의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중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종교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종교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경쟁 사회에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종교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 부는 '힙(Hip) 불교' 열풍은 큰 호재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불교에 대한 호감에 그치지 않고 신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에서부터 법회와 신행 활동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에 기대 유지되던 종교적 권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무종교의 시대는 종교의 종말이 아니라, 종교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 변화 앞에서 불교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불교의 미래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 양국, '5분 명상'으로 교류 확대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애증(愛憎)'이 아닐까 싶다. 어떤 대상에 대해 동시에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애증은 역설적으로 깊은 관계의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전쟁으로 갈등하면서도,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불교를 통해서도 깊은 교류를 나눴다. 당장 일본불교의 전래는 백제 성왕이 불상과 경전을 야마토 정권에 선물로 보낸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일본서기〉에도 기록된 공식 역사다.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매년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크다. 범어사 일원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 한일 양국 불교도들은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다짐했다. 특히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하루 5분 명상' 실천을 통해 세계평화 실현을 이룰 것을 천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감정의 벽을 해소하는 것은 다양한 민간교류이며 불교 명상을 통한 교류는 새로운 형식의 교류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스스로가 마음의 평화를 이뤄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하루 5분 명상 실천 운동'의 캐치프라이즈는 사회 공익적 의미도 가진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 양국의 지속가능한 교류는 정신문화적 측면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진정한 관계 회복과 우호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6월 2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6월 2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2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다.

이제, 당신의 발에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쉬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특판가 80,000원

사계절용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